

디자인 충남

vol.14 August. 202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전문저널

발행

2022년 8월 30일

발행인

유동훈

발행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14

www.cpdcre.kr

기획

박혜은

간사

정진주

디자인 및 편집

오병찬 · 강경연 · 김성희

주관부서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제작 · 인쇄

삼성애드피아

CONTENTS

Issue	002 다거점 생활의 보급과 유희 주거공간의 활용을 통한 지역 상생 가능성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윤철재 교수
-------	--	----------------------

Level up	014 충청남도 공공사업 디자인 관리 제도에서의 전문가 역할	선문대학교 건축학과 이장범 교수
----------	--------------------------------------	----------------------

Review	028 그늘정원은 숲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재)천리포수목원 최창호 박사
	038 유럽 건축 대가들의 접근방법으로 본 건축사례	KEAB 백희성 건축사

Team 서산시	046 서산시 '장소' 중심의 공간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	서산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이지은 주무관
-------------	------------------------------------	---------------------------

Focus on 센터소식	056 2021년도 정책연구 성과
	060 2022년도 정책연구 소개
	061 2014~2021년도 연구성과
	062 센터소식

국내 정책동향	068 중앙부처
	074 광역지방자치단체
	090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다거점 생활의 보급과 유희 주거공간의 활용을 통한 지역 상생 가능성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윤철재** 교수

시작하며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는 이제는 그다지 신선할 것 없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 나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세어하우스, 커뮤니티 하우스 등의 보급 등이 새로운 현상으로 설명되던 이 변화의 물길은 또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IT 기술을 통한 근무형태 원격화, 구독·공유경제의 보급, 코로나19의 확산 등은 다거점 생활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다거점 생활의 확산, 빈집으로 대표되는 유희 주거공간의 새로운 공간자원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지역 쇠퇴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한층 상위레벨의 지향점에 초점을 두며, 이를 위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향과 정책적, 사회적 지원의 움직임들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거점 생활

다거점 생활이란 하나의 개인 혹은 세대가 여러 거점을 두고 생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용어의 등장은 일생 혹은 장기간 단 하나의 주거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세대에게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본 내에서도 다거점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 플랫폼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이는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집의 소유는 점점 어려워지는 일반적인 관점에 더하여, 공유경제 활성화, 원격근무와 같은 IT 기술을 근간으로 한 업무 형태 변화, 코로나가 가져온 도시 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는 트렌드 확산에 기인하고 있다.

‘크로스 하우스(XROSS HOUSE)’는 동경을 중심으로 3,000여 개의 물건을 확보하고 통상적 임대 기간인 1~2년이 아니라, 1개월 단위로 이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일합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서비스를 개시한 하프(HafH, Home away from Home)는 서비스 등급별로 1개월에 5일에서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을 포함한 7개국 53개의 게스트하우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19년 시작하였다.¹⁾

2018년 서비스를 개시한 ADDress((어드레스)-이하 ADDress)는 일본 각지의 빈집이나 이용되지 않는 별장 등 방치되었던 유휴 주거공간과 해당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를 정액 회원제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방 중소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 또는 쇠퇴지역 활성화 등 공공적 기여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사회 각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공공적 기여 효과의 파급 가능성에 주목하여 ADDress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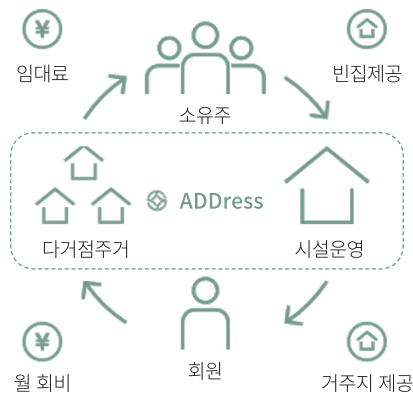
신개념 다거점 주거공간 공유 플랫폼 ADDress

이 주거 공유 서비스가 기존의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등과 다른 점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어느 시설이든 자유롭게 바뀌가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ADDress’라는 서비스명 또한 주소지를 뜻하는 어드레스(address)가 들어간다는(add)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신을 정액제 다거점

1) 서비스 개시 이후 코로나의 확산으로 해외시설들의 확대는 제한적이었던 걸로 보이나 일본 국내 시설은 1,017곳까지 확대되었다.

서비스 제공회사로 부르고 있다. 월 약 40여만 원(4.4만 엔)을 내면 전국 각 지역의 연계시설에서 무제한으로 거주할 수 있다. 회원이 되면 전기나 수도, 인터넷 요금은 물론 동반 1인까지 무료로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일본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방 생활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었던 상황에 코로나 확산으로 도시회피 효과까지 더하여 2020년 한 해에만 이용자 수가 5배까지 급증하였다고 한다. 최초 서비스 제공 당시 13곳에 불과했던 연계 시설의 숫자는 2022년 현재 210곳까지 증가하였다.



▲ ADDRESS의 빈집활용 비즈니스 모델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서비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역의 빈집이나 방치된 별장 등 유휴 주거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주거공간의 소유주로부터 리모델링된 빈집을 제공받아 회원에게 임대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관심과 동경은 있으나 이주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다거점 주거공간 공유서비스는 지방 생활에 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춰준다. 각지를 옮겨 다니며 생활해 보고 싶은 이용자의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의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나아가 지역 활성화와 연결되어 사회적 공헌을 실천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공생 가능성이 열리는 것은 아닐까.

2) 출처 : <https://address.love/company?from=footer>

3) 출처 : <https://address.love/company?from=footer>

<ADDRESS가 연계하고 있는 다양한 공유 주거공간의 유형들(1)>³⁾



▲ 건축 100년 된 도심지 내 주택

▼ 공실 일부를 연계한 지역 호텔



<ADdress가 연계하고 있는 다양한 공유 주거공간의 유형들(2)⁴⁾>



▲ 농촌지역의 리모델링 주택

▼ 폐열차를 개조한 주거공간





【ADDress家守インタビュー】他のだれかを自分のことのように思えるように「vol.03：習志野A邸 家守 江藤 元彦さん」 | ADDress Webマガジン | note



【ADDress家守インタビュー】自然にふれて元気になってほしい、山から海のある町へ「vol.02：逗子A邸 家守 廣川 英昭さん」 | ADDress Webマガジン | note



【ADDress家守インタビュー】京都から神奈川県清川村へ移住！畑づくりで地域と会員をつなぐ「vol.01：清川A邸 家守 河野 潤さん」 | ADDress Webマガジン | note

▲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야모리⁵⁾

농촌의 빈집이나 유휴별장에서 시작했던 서비스 연계 대상 또한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공실이 발생하는 지역 소도시 호텔의 객실 일부, 더는 사용하지 않는 열차를 개조한 숙소까지 포함되어 개인소유의 주거공간에서 민간숙박기업, 공공시설까지 공유 주거공간의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ADDress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용자를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해주는 야모리(家守)의 존재이다. ‘야모리’란 일본 에도시대에 지주의 집을 관리하던 일종의 집사와 같은 존재로 주택 관리부터 임차인의 생활 지원까지 다양한 잡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개념을 현재에 새롭게 적용해 각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이나 연결고리가 부족한 이용자들을 지원하여 회원과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매니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Address의 직원이 아니라 사람과의 교류를 좋아하고 해당 지역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집을 통해 선발된 것이며, 실제 이용자들이 특정 지역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ADDress를 론칭한 사베토 다카시(佐別当 隆志) 대표는 이 서비스를 시작한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 하나, 주소 하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해졌다.”, “원하는 곳에 살다 보면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고, 그 커뮤니티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책임질 것이다.”

4) 출처 : <https://address.love/company?from=footer>

5) 출처 : <https://sites.google.com/address.love/yamoribrand/?from=footer>

그는 자신들의 목표를 “2030년 회원 100만 명, 지역거점 수 20만 채”라고 말하며 20만 채는 그래봤자 일본의 2030년대 빈집 예상치인 2,000만 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면서도 빈집문제의 해결과 지역 활성화라는 공공적인 가치를 내건 이들의 당찬 포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지속적인 두 지역 거주 지원정책

실제로 일본에서 이렇게 다거점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사회변화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그 근간에는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온 ‘두 지역 거주 지원정책’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지역 거주’란 일본 정부가 1990년대 후반 귀농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정책을 펼쳤던 시기부터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함께 ‘두 지역 거주’의 개념도 함께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국토교통성에서 발간한 「두 지역 거주의 의의와 그 전략적 지원책의 구상」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는 ‘두 지역 거주’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도시 주민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 농산어촌 등에서 지역의 소비나 주택 등의 수요를 증가시켜 새로운 고용 기회나 본업 이외의 부소득을 창출하는 것. 지역 정주 인구 증가로 연결 기대

2020년에 발간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에서 ‘새로운 일상’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두 지역 거주는 주요 생활거점이 아닌 또 다른 특정 지역에 생활거점을 포함하는 생활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으며, ‘새로운 일상이 실현되는 지방창생(地方創生)’이라는 설명과 함께 다거점 거주는 도쿄 일극집중 현상 극복과 다핵 연계형 국가만들기의 주요 시책으로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에서는 ‘두 지역 거주’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놓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시책이나 사례 홍보 및 운영상 개선점 논의 등을 통해 두 지역 거주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두 지역 거주 촉진협의회’가 2021년 3월 설립, 활동을 시작하였고 전국 600여 개의 지자체와 기관이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활동에 힘입어 최근에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두 지역 거주, 나아가 다거점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례로 인구 10만 규모의 나가노현 사쿠시(長野県 佐久市)에서는 ‘원격업무 실천자 스타트업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쿠시 내에서 두 지역 거주를 하며 원격업무를 실행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두 지역 거주 관련 주요 지원 시책⁶⁾

유형	시책명	내용	담당국
정보 제공	새로운 생활양식에 따른 두 지역 거주 추진 조사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핸드북 작성 및 제공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이주 및 교류 정보 가든	상담창구 ‘이주, 교류정보 가든’을 통해 지자체,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주거, 취업, 생활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총무성 지역활력 창조그룹
	지자체 이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 교부세 조치	2021년부터 두 지역 거주와 관련된 경비에 대해 특별 교부세 대상에 추가	총무성 지역활력 창조그룹
주거	플랫35	민간 금융기관의 전 기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범위에 세컨드 하우스도 이용 가능 (2006.01~)	국토교통성 주택국
	빈집대책 종합지원사업	빈집 특별조치법을 활용해 빈집의 철거, 활용 등 종합적인 빈집대책에 노력하는 시정촌 지원	국토교통성 주택국
	전국판 빈집 및 공지은행	여러 지역 범위를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 표준적인 빈집뱅크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작성 예정	국토교통성 부동산, 건설경제국
원격 업무	도시구조 개편 집중지원사업	지방 도시 중심지가 지 생활권 등에서 원격업무 거점시설(코워킹 스페이스 등) 정비를 지원대상에 추가	국토교통성 도시국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	관광 등 지역자원 활용에 노력하는 지구의 워케이션(workation) 거점시설(코워킹 스페이스 등) 정비에 대해 지원대상에 추가	국토교통성 도시국
	민관연계 원도심 재생 추진사업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원도심 보행 우선 구역 등에 코워킹 및 교류시설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	국토교통성 도시국
	마을만들기 펀드 지원 사업	노후 자원을 활용한 원격업무 거점이나 그린 오픈 스페이스 등의 정비에 대해 금융 지원하는 펀드 창설	국토교통성 도시국
	지방창생 원격업무 교부금	새틀라이트 오피스 등의 시설 정비, 운영 지원 등 지방 창생 원격업무를 추진하는 지방공공단체의 대응 지원	내각부 지방창생 추진사무국
	지방창생 이주 지원 사업	도쿄에서의 업무를 원격업무를 통해 지속하면서 이주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추가	내각부 지방창생 추진사무국
	농촌숙박 추진 대책	지역에서의 농촌숙박 실시체제 구축과 함께 기업 등으로 부더의 워케이션 수용을 위한 환경 정비를 지원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6) 출처 : https://www.mlit.go.jp/2chiiki/files/nichiikisesaku_r4.pdf



▲ ADDress와 JR동일본, ANA기업의 교통편 구독서비스(1)⁷⁾

한편 앞서 살펴본 ADDress의 경우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다거점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DDress 회원을 대상으로 철도기업 JR 동일본, 항공사 ANA와 연계된 교통편 구독 서비스를 실증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수차례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거점 간 이동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맺으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험을 일찍부터 경험한 일본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부터 시작된 다거점 생활 현상을 ‘지방창생’이라는 정책 기조의 실현방안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다거점 생활의 유형도 다양해질 것이고, 지역 활성화 기여라는 측면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것이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한 달 살기와 같은 트렌드에 힘입어 유사한 플랫폼들이 시도되고 있다. 아직은 한 달 살기라는 이 흐름을 달라진 여행패턴의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지역의 유희공간자원에 초점을 둔 서비스 플랫폼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 ADDress와 JR동일본, ANA기업의 교통편 구축서비스(2)⁸⁾

그러나 한편으로는 숙박업과 관련된 법 제도가 원인이 되어 이들 서비스의 확산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빈집을 리모델링 후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했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농어촌민박업의 인허가 조건에 위반되는 이유로 1년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최근 특례의 경우로 인정이 되어 서비스가 개시되었지만 2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영업일수 또한 연 300일 이내라는 조건이 따라붙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 또한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나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 속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제는 주거를 둘러싼 달라진 트렌드를 지역 활성화의 요인으로 삼고 여러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이웃 나라의 사례를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닐까.

7) 출처 : <https://jrestartup.co.jp/news/2020/10/3397/>

8) 출처 : <https://www.anahd.co.jp/group/pr/202001/20200116-2.html>

LEVEL UP

014 충청남도 공공사업 디자인 관리
제도에서의 전문가 역할

이장범 교수

충청남도 공공사업 디자인 관리 제도에서의 전문가 역할



선문대학교 건축학과 **이장범** 교수

1. 디자인 관리 제도

충청남도에서는 공공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디자인 컨설팅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있으며,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이하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필자가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충청남도에서 디자인 관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디자인 컨설팅이란? 충청남도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의 사업구상,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계획·설계·시공·설치·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¹⁾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²⁾과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사전검토

사전검토의 목적은 객관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업 목표, 설계 및 시공방식, 유지관리 방안 마련 및 예산 설정 등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유도하며, 적정 수준의 품격을 확보하고, 공공적 가치의 구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충청남도 도민의 공간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디자인 컨설팅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 공공용품 등이 대상이 되며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디자인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과 품격 있는 경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전검토와 디자인 컨설팅 제도의 특징

사전검토와 디자인 컨설팅의 주요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검토는 공공건축물을 범위로 하는 한편, 디자인 컨설팅의 범위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 광범위하다. 또한 사전검토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검토를 하지만 디자인 컨설팅은 신청기관(충청남도, 시·군)을 포함한 충청남도 출자 출연기관)에서 신청한 사업단계에 맞춰 자문을 진행한다.

1)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 <http://www.cpdcr.re.kr/html/consulting/consulting0101.php> 내용 발췌 인용

2)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건축물의 조성 사업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즉, 사전검토는 법에 근거한 의무적인 디자인 관리 제도로써 공공건축물에 한정되지만, 사업기획 단계에서 디자인 관리가 가능하여 사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 컨설팅은 분야가 넓고 사업 담당자가 필요로 할 시 지원해줄 수 있어 유연하게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근거 법 제도가 없어 사업 담당자의 의지에 좌우된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사전검토와 디자인 컨설팅의 주요 특징

구분	사전검토	디자인 컨설팅
대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 공공용품 등
방법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 검토의견 제시	사업단계별 자문 (단순 자문 의견 또는 시안 제시)
설계자 선정	공모 방식 등	공모, 수의 계약 또는 입찰
협의 방법	최종 제출 전 1회 협의	현장답사 시 협의 진행 (여러차례 진행 가능)
협의 참여자	주무 담당자, 기획 설계 건축사	주무 담당자, 용역사
특징	사업기획 단계에서 디자인, 사업비 및 사후 관리까지 검토	요청 시 사업단계에 따른 자문

2. 자문위원의 역할과 해당 시·군 담당자 및 설계자와의 협의

사전검토

1) 세부 자문 내용

사전검토는 사업기획부터 시설 운영까지 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다음의 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기 작성된 기본 설계안 등에 대한 의견제시가 최종 목적은 아니고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디자인 공모방안,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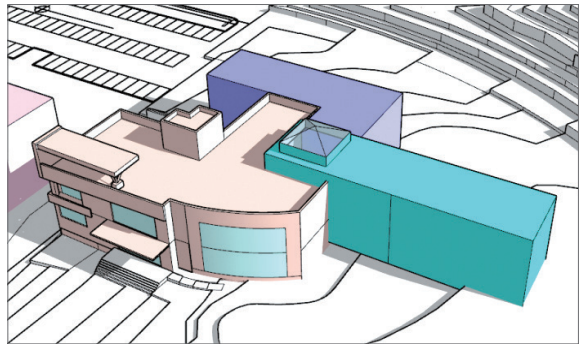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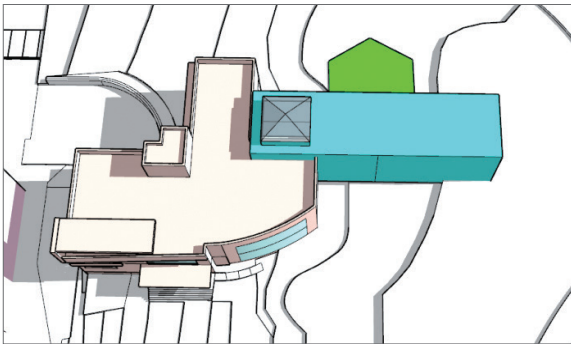
▼ 사전검토의 세부적인 검토 내용

사전검토 내용	비고
사업개요, 사업부지 현황, 시설 규모 계획, 건축물 내외부 공간 구성 계획, 예산계획, 디자인 관리방안,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시설 운영계획	공사비 등은 공공디자인센터 제공 매뉴얼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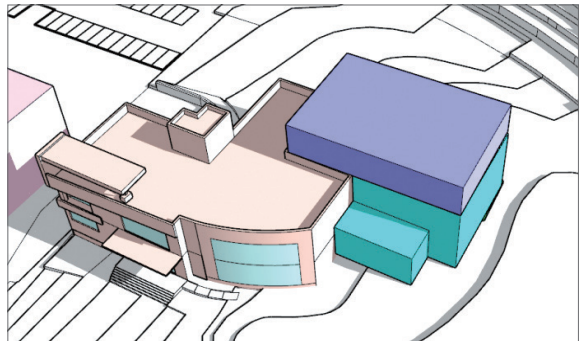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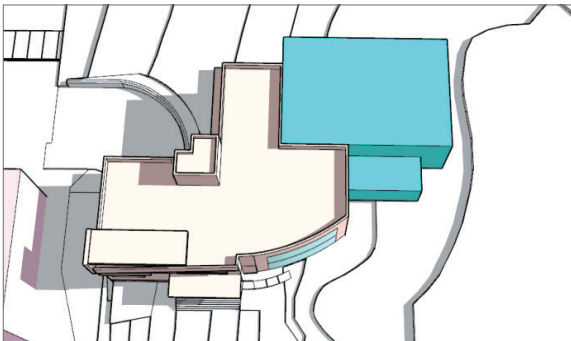
2) 협의 과정과 디자인 관련 의견제시 사례

사전검토는 검토 의견서 제출 전에 1차 협의를 통해 사업 목적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신청서 검토와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한 숙지, 의문 사항 및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사전 의견 조율이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전검토는 실제 기본 설계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 제시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공간 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모 관련 내용이므로 공간 구성 프로그램과 조닝 등의 내용 관련 협의와 검토가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마다 공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를 파악하고, 사업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기본 설계안의 정확한 방향 설정을 위해 3차원 모델링을 시행하고 공간 구성의 방향을 정리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사례 1 : 증축 계획의 3차원 모델링 형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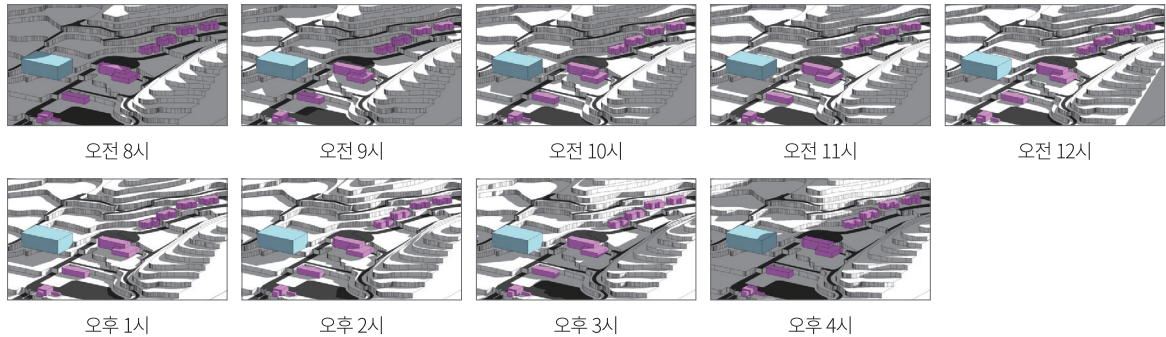


증축 대안 1안(좌) 2차 증축 대안 계획(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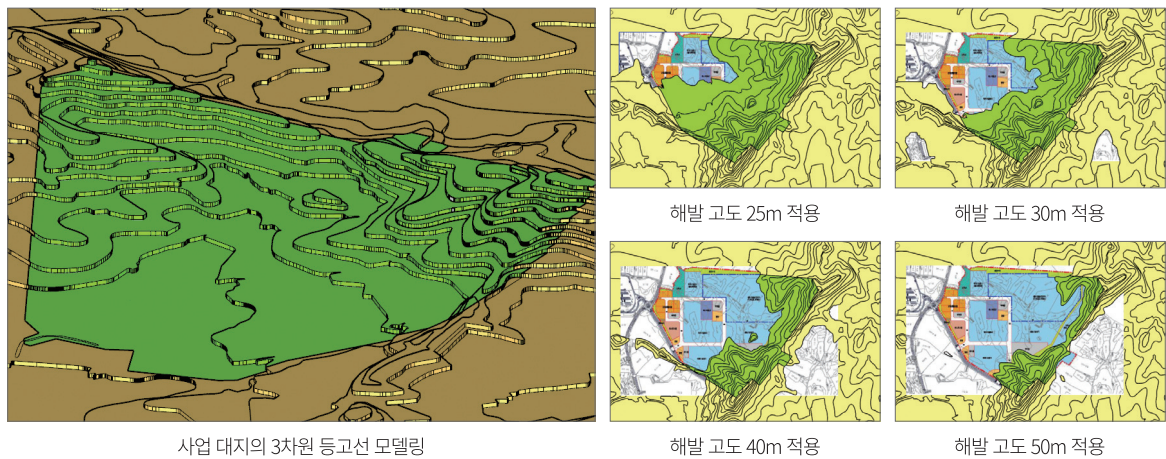


증축 대안 2안(좌) 2차 증축 대안 계획(우)

▼ 사례 2: 동지 일의 시간대별 시설물 예상 배치 위치에 따른 일조 상황 검토



▼ 사례 3: 등고선의 3차원 모델링과 등고 높이에 따른 시설물 배치 상황의 검토



첫 번째 사례에서는 사업 담당자가 향후 설계 진행에 대한 정확한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서관 최초 증축과 향후 2차 증축까지 고려한 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전문프로그램으로 시간대별 일조 상황을 분석하여 최대 일조를 받는 위치에 에너지 최적화 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사례는 지형을 3차원 등고선 모델링을 하여 가장 효율적인 시설 배치가 가능한 최적 해발 고도를 분석한 것이다. 필자는 소개한 사례처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공간 구성과 설계의 합리적인 방향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간 분석 기법 등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3) 협의 내용의 피드백

사전검토는 의견서를 통지하면 검토의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착공 전 검토의견 활용계획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검토의견이 반영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다.

디자인 컨설팅

1) 세부 자문 내용

디자인 컨설팅은 아래의 표와 같은 대상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제 공하는 의견서 양식에 따라 기술하여야 할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각 디자인 컨설팅 대상물의 종류에 맞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 디자인 컨설팅의 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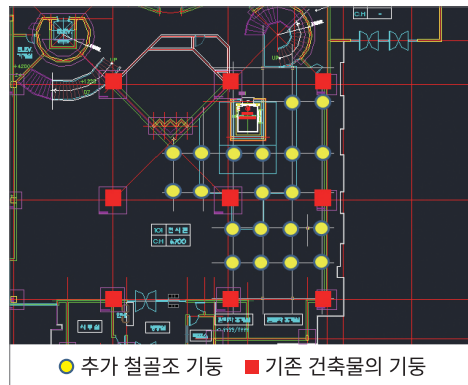
대상	방법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시설규모계획, 공공시설물, 공공미술(조형물) 및 시각이미지, 공공용품	디자인 자문 또는 디자인 시안 제시

2) 협의 과정과 디자인 관련 의견제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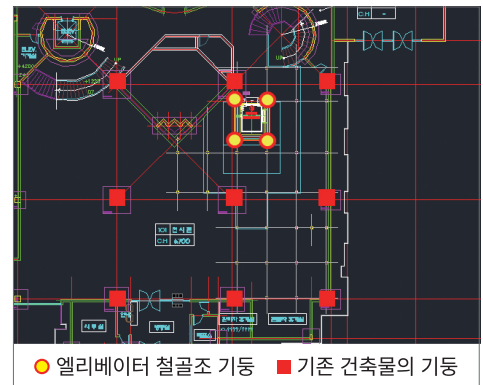
디자인 컨설팅은 참고자료를 자문위원회에 송부 후 사업 담당자와 용역사의 참 여하에 현장답사와 동시에 1차 협의를 현장이나 근처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 기존 증축 계획의 구조 계획과 제안하는 구조 계획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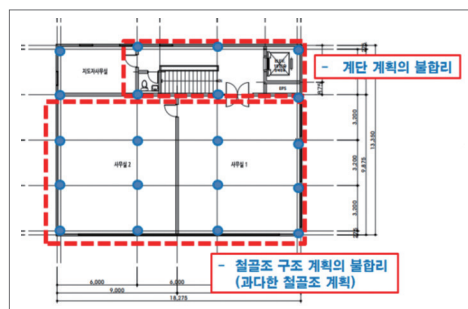
기존 기둥 추가 계획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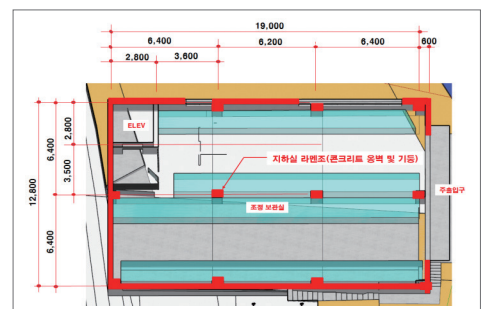
수정 제안(안)



기존 기둥 추가 계획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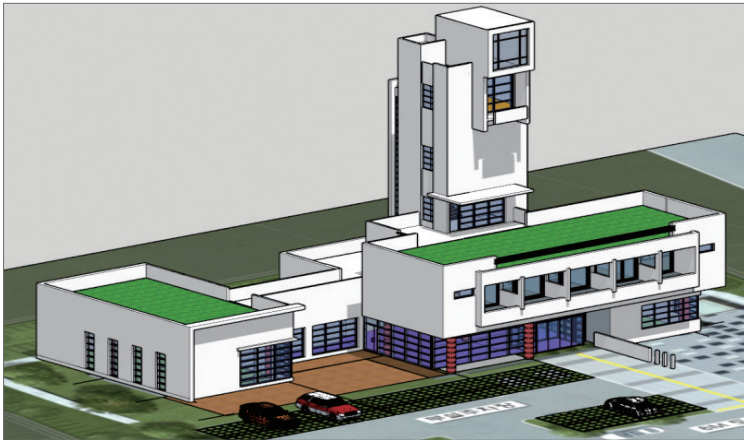
수정 제안(안)



이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주체 측의 의견을 청취한다. 1차 협의 후 단순 디자인 자문과 디자인 시안 제시 중 택일하여 디자인 컨설팅 의견서를 작성 제출한다.

필자가 그동안 자문을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앞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라멘조 및 철골조의 구조 계획, 기둥 스패 계획 등에서 부적절한 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우도 많았다. 또한 기존 계획안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3차원 모델링의 결과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구조 계획, 기본 설계 방향 설정 등이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하여 합리적인 디자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기존 안의 단점을 보완한 컨설팅 제안 (안)-1



공간 계획 및 전년대 이미지 고려한 대안 제안



절토 최소화 계획 방향으로 수정 대안 제안

▼ 기존 안의 단점을 보완한 컨설팅 제안 (안-2)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완한 대안 제안



평면, 입면, 재료 계획 대안 제안

3) 협의 내용의 피드백

최종 디자인 컨설팅 의견서가 제출되면 사업 주체 측인 시·군 등 지자체와 사업소에 서는 자문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게 된다. 많은 컨설팅 대상 사업들이 심 의 등 과정에서 컨설팅 내용의 검토와 반영 여부 정도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디자인 컨설팅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컨설팅 내용 반영 정도는 전적으로 주체 측이 최종 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물론 컨설팅 의견 반영 또는 미반영에 대한 사유를 적시 한 반영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컨설팅 반영 결과를 확인하는 피드백 과정이 있지 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반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다.

3. 문제점 및 애로사항

사전검토

일반적으로 사전검토 자문위원은 주로 건축설계 및 계획이나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 가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기에 사업기획, 공간 계획 및 각종 인증 취득 관련 등을 검 토할 역량이 충분하나, 공사비, 공사 기간 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공사비, 시 공계획 등에 대한 자문은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제공한 매뉴얼 자료를 참조하고 본 인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공사 형태와 최신 공법, 최근 증가 하고 있는 친환경 관련 공사 등을 다루어야 하기에 적절한 것이었는가에 관한 확신 을 하기 쉽지 않다.

사전검토 자문위원 중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계와 디 자인 위주의 업무를 주로 다루는 자문위원들이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 공사비와 시공 기간 등을 판단하기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전검토 진행 시 대규모 공사 중 복잡한 리모델링 공사와 친환경 특화 공사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측이 어려운 공사의 경우 공사비와 시공계획 등은 해당 분야 전문가 그룹과 일부 협력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컨설팅은 기 제시된 설계안이 있을 경우 단순 의견제시 또는 시안 제시를 통해 실제 설계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자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디자인의 특성이 그러하듯이 개인의 기호 또는 선호하는 양식 등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원설계자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경향이 다분하게 있다. 자문을 받는 설계자와는 다른 시각에서 주관적이지만 합리적이라고 필자 나름대로 확신하고 제시하는 의견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영되지 않게 되면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일도 있다.

건축의 경우 전국 단위의 허가 면적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허가된 면적이 전체 허가 면적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이유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과 관련 있고,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 경관이 좌우한다. 도시건축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관리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디자인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건축물,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은 결과적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개선사항 제안

앞서 언급한 디자인 관리 제도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하면 훨씬 발전적인 제도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제안 내용을 정리해 본다.

사전검토

1) 세부 기술 영역 중 공사비, 공사 기간 관련 부분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일반적인 공사가 아닌 최신 공법이나 친환경 공법이 포함된

중요 공사, 복잡한 리모델링 공사 등은 규모나 공법 등에서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이러한 사업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시공, 친환경 공법 등 전문가)의 별도 검토 또는 추가 자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성 있는 검토 진행이 필요하다.

2) 공모전 계획안과 공모 진행 과정에 자문위원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사전검토 의견제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위원이 관련 사업에 대해 관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업의 기획 의도부터 공간 디자인, 디자인 완성을 위한 적합한 설계 진행 방향과 사후 관리까지 자문위원은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검토의견서 제출 후 최소한 공모제안서 작성에 참여하고, 가능하다면 공모 진행과 작품 선정 이후에도 지속해서 자문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사업 계획서 신청서상의 기본 계획안

사업 계획서 신청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디자인 시안 또는 기본 설계안은 큰 고민을 담고 있지 못하고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공간 배분, 조닝 그리고 규모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에 도움이 되는 설계안이다. 따라서 공모 참여시 이 기본 설계안이 공개되면 공모 참여 설계자의 자유로운 공간 계획 아이디어를 제한하고, 또한 한 방향으로 설계를 잘못 유도할 수 있으므로 기본안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디자인 컨설팅

1) 초기 단계부터 자문위원의 참여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자문 가능한 전문가(지역의 총괄 건축가, 공공건축가 또는 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가 관여하여 디자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현재는 사업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사업단계와 상관없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자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금은 번거롭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부터 컨설팅 진행으로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들에게 제도의 활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2) 의견서 제출 전 2차 협의

현재와 같이 1차 현장 협의 후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의견 중 일부를 주체 측인 시·군 등 지자체, 사업소와 기본 설계자 측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최종 의견서 제출 전 2차 협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의견서를 완성하고 상호 간 합의하에 자문 내용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대면 회의보다는 비대면 형식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5. 발전적 운영의 기대 및 효과

이상으로 ‘사전검토’와 ‘디자인 컨설팅’이라는 2개의 큰 줄기로 각각의 개념, 특징과 애로사항 그리고 제안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개선사항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적용된다면 기대하는 바와 효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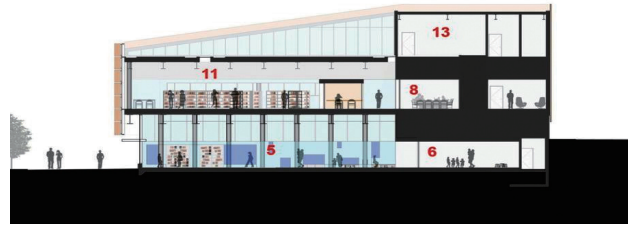
▼ 제안 내용과 예상되는 기대 및 효과

구분	제안 내용	기대 및 효과
사전 검토	공사비 산정 등에 시공 등 전문가 자문 참여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시공 분야 검토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사전검토의 신뢰성 향상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 제고
	공모 계획과 진행 등 과정에 자문위원 참여	공모 계획 과정뿐만 아니라 공모 후에도 설계안의 작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자문으로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최적의 우수한 작품 도출 가능성 제고
	기본 구상 설계안의 공개 제한	공모 참여 설계자의 창의적인 설계 유도 가능
디자인 컨설팅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역할로 참여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컨설팅 유지 가능
	컨설팅 의견서 제출 전 2차 협의 진행	컨설팅 내용의 적극적인 반영 유도 가능

6. 새로운 기대를 하고 정리하며...

합리성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가치와 덕목에 따라 변한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바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이고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이 최우선 가치가 되었다. 에너지 절약 건물 설계를 위해서는 일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의 다음 사례에서는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축물을 계획하였다. ‘District of Columbia Public Library’는 채광의 유입과 조절을 최대한으로 가능하게 한 설계로 에너지 합리화된 건축물이 되도록 했다. 또한 ‘New United States Courthouse - Los Angeles’ 건물은 건축물의 축을 틀지 않고 태양의 일조를 받는 방향에 의도적으로 유리한 축(Axis)을 설정하였다. 또한, 불리한 방향은 철저한 단열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설계안을 마련하였다.

▼ 일조가 적극적으로 적용된 건축물 설계 사례-1



District of Columbia Public Library의 계획안과 단면 설계 개념³⁾

사전검토 대상 건축물도 디자인 컨설팅 대상 건축물도 이제는 친환경 설계 기법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친환경 설계 기법으로 자연형 패시브 시스템과 철저한 단열재 계획 등의 합리적인 설계, 그리고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 활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검증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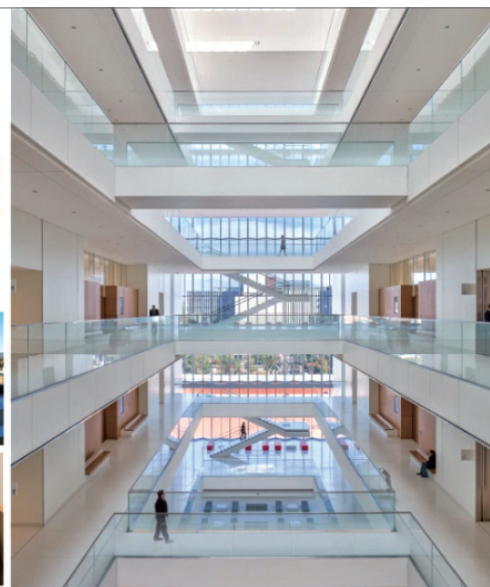
필자는 충남에 디자인 컨설팅이 도입된 초창기인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현 공공디자인센터) 개설 시부터 참여하고 있는데 디자인 컨설팅은 지역의 모습을 바꾸는 데 조용히 큰 역할을 해왔다고 확신한다. 이는 공공디자인센터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자체 및 사업소 그리고 설계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컨설팅 업무량에 비해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컨설팅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공디자인센터는 충남의 디자인 관리를 위해 현시대가 요구하는 또 다른 가치 창조를 최일선에서 주도적으로 선도하고 끌어내는 역할을 계속해 낼 것으로 확신한다.

3) 출처 : <https://www.archdaily.com/403937/district-of-columbia-public-library-the-freelon-group-architects> 참조 인용

4) 출처 : <https://www.aia.org/showcases/185941-new-united-states-courthouse---los-angeles> 참조 인용



New United States Courthouse - Los Angeles의 설계 개념과 외벽 상세 계획안⁴⁾



▶ 일조가 적극적으로 적용된 건축물
설계 사례-2



REVIEW

028 그늘정원은 숲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최창호 박사

038 유럽 건축 대가들의
접근방법으로 본 건축사례

백희성 건축사

그늘정원은 숲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재)천리포수목원 **최창호** 박사

우리나라의 산림 식물식재 역사는 1973년 제1차 치산녹화기로부터 시작하였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실시한 제1차 국토개발계획과 국토보전 개발 측면에서 무수히 많은 식물이 식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1년 2월 28일 제218회 임시국회에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증식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식물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1년 4월 26일 수목원법에 정원을 더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현재 정원의 범위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식물식재 역사가 50여 년 되면서 키 큰 활엽수나 상록수들이 상층을 우점하고 있어 하층, 중층, 지피층을 고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는 식물 선진국에서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왔으며 이를 통해 "그늘정원(Shade Garden)"이라는 정원의 장르가 만들어졌다. 그늘정원은 일반적인 장소보다 빛이 부족한 곳에서 견디는 능력이 탁월한 식물들을 이용해 작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범주의 정원에는 만병초원, 수국원, 비비추원, 양치식물원, 이끼원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정원의 범주가 국내에도 커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정원, 국가정원이 늘어나고 일반 주택정원도 많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주택정원에는 담이나 큰 나무 아래의 그늘을 이용해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 특히 건축의 담벼락 안쪽은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면 다양한 식물을 아름답게 적용할 수 있다.



▲ 미국 시카고 식물원

▼ 영국 마우드 힐



그늘정원의 역사

정원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역사가 깊다. 그 역사를 통해 당시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그 모양이 달리 조성되었다. 13세기에는 특히 종교의식을 위한 성전에 중정이 만들어지고 일부 담벼락 주변에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이 식재되기 시작했다.

14~16세기 이탈리아의 노단 건축식 정원과 17세기 프랑스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을 거쳐 18~19세기에는 영국의 풍경식 정원에 이르렀다. 영국에서는 자연주의, 낭만주의 철학 사상을 추구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정원이 유행했다. 특히 곡선과 수공간, 우거진 숲, 빛과 그늘 등 모든 요소가 정원에 적용되었다. 안개와 비가 많고 빛이 부족한 기상 조건이 영국에서 풍경식 정원이 시작된 요소이며, 그늘정원이 발달한 시초가 아닐까 생각된다.

▼ 그늘정원에 적용하기 적합한 식물



노루오줌



새우난초



가지복수초



너도바람꽃

그늘정원의 이해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재까지도 조경설계 및 식재가 자연의 생태, 즉 숲의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성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숲에는 정원조성의 모든 정답이 있다. 사계절 각각의 방향과 위치에서 살고 죽는 일이 반복되면서 숲은 완성되고 역사가 탄생한다. 오랜 기간 숲의 천이는 모든 생물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곳에는 그늘정원이 늘 벅차오르게 존재한다.

안정된 숲은 모든 자연재해를 막아준다. 키가 큰 나무의 잎들은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주어 나무 아래까지 온화하게 스며들게 해준다. 또한 숲 밖의 기후조건보다 변화를 적게 만들어 식물이 자라기에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이 공생하며 살아가는 곳에 그늘정원이 존재한다. 그늘정원에서 자라는 식물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공존하며, 생존에 꼭 필요한 빛과 유기물, 수분 등을 안정적으로 분배해 공생한다. 그들은 숲의 식생천이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로 오랜 변이과정을 거쳐 음수림을 완성시킨다.

그늘의 종류

일반적으로 식물 선진국에서는 그늘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한다.

① 밝은 그늘(Light Shade)

종일 많은 빛이 들지만 높은 벽이나 나무들이 있어 일부 빛이 차단되는 곳을 말한다.

식물을 식재 후 건조피해가 잦을 수 있어 수분 증발 억제를 위한 멀칭(Mulching, 바닥덮기)에 신경 써야 한다.

② 부분적 반그늘(Partial, Semi-shade)

한여름에 3~6시간 빛이 드는 장소로 아침 빛과 한낮에 일부 빛이 공급되는 곳을 말한다.

빛을 좋아하는 식물을 식재하면 어느 정도 생존하지만, 개화의 수는 현저히 낮아진다. 흔히 반그늘 식물이라고 알려진 종류를 식재하면 잘 자란다.

③ 얼룩진 그늘(Dappled Shade)

반그늘과 비슷한 곳이지만 큰 낙엽성 교목에 바람이 불면 잎이 움직여 빛이 간간히 들어오는 곳을 말한다. 대표적인 숲은 자작나무숲이다.

일반적으로 반그늘 식물을 식재하면 무난하게 잘 적응한다. 다만 큰 나무 밑에 식물이 식재되기 때문에 토양의 구조 개선과 수분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한다.

④ 반그늘(Moderate Shade)

하루 중 낮에만 2~3시간 직사광선을 받는 곳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건물 밑이나 큰 나무 밑에 빛이 적당히 드는 곳을 말한다. 이 곳은 개화를 많이 하는 식물보다는 잎의 색상을 중심으로 식재하는 것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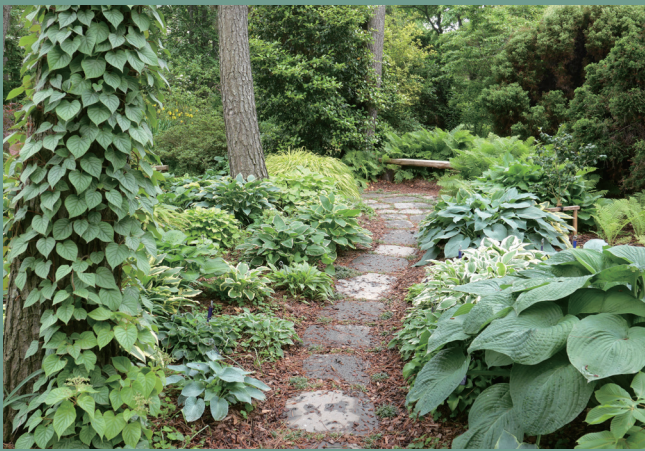
⑤ 극음지(Deep of Heavy Shade)

일반적으로 빛이 아주 약하게 스며드는 곳을 극음지라고 하며, 잎이 뾰뾰한 낙엽수나 상록수, 침엽수 울타리 아래, 큰 건물 아래 등 하루에 빛이 2시간 미만인 곳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건물 주변이나 높은 울타리 밑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지역이며, 상록수나 뾰뾰하게 낙엽수가 밀집된 숲에는 일부 지역에 이끼 등이 많이 자라는 곳이다.

▼ 그늘정원 디자인 사례





▲ 그늘정원 디자인 사례





캐나다 루치드가든



영국 엑스버리가든



캐나다 UBC 니토베 메모리얼가든



캐나다 밴두센식물원

천리포수목원의 그늘정원

① 그늘정원(Shade Garden)

기존 교목성 식물들이 상층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정원의 구역을 Deep Shade Garden, Full shade Garden, Partial Shade Garden으로 나누어 1년 내 짙은 그늘이 만들어지는 곳과 직사광선이 하루 3시간 이하로 들어오는 지역, 하루 4~5시간 양지가 되었다가 음지가 되는 곳으로 공간을 나누어 구성하였다.

조성 기간은 계획단계부터 1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기반 및 식재 공사는 약 2개월간 진행하였으며, 2019년 4월에 준공하였다. 식물은 관목성 목본 30분류군 110개체, 속근성초본 및 구근 159분류군 3,669개체, 양치류 47분류군 283개체, 총 4,062개체가 식재되었다. 천리포수목원의 그늘정원은 식물원, 수목원 또는 정원의 모델을 제시하며 해당 분야 전공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 천리포수목원 그늘정원



② 양치식물원(Fern Garden)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양치식물을 수집·전시·교육할 목적으로 2020년 4월 준공되었다. 규모는 약 960㎡(240평)이다. 정원은 Deep Shade Fern Gaden, Jeju Fern Garden, Partial Shade Fern Garden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조성 기간은 계획단계부터 1년이 소요되었으며, 기반 및 식재 공사는 약 2개월간 진행하였다. 식물은 총 234분류군 8,473개체가 식재되었으며, 주요 전시식물인 양치식물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전시하고자 하였고 주 배경이 되는 관중(*Dryopteris crassirhizoma*), 미역고사리(*Polypodium vulgare*) 등을 포함하여 128분류군 3,785개체가 식재되었다.

③ 비비추원(Hosta Garden)

비비추(Hosta)속은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만 분포하는 특산식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이 비비추의 자생지라는 인식이 부족하며,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이 역수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비비추 종류를 알리고 외부에서 교잡되어 만들어진 재배품종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2019년 5월에 준공되었다. 총면적은 365㎡(약 111평)의 부지에 1년 이상의 계획단계와 약 4개월에 걸친 시공 후 완성되었다. 이곳에는 207분류군 833개체의 식물이 식재되었다.



▲ 천리포수목원 양치식물원



▲ 천리포수목원 비비추원

유럽 건축 대가들의 접근방법으로 본 건축사례



KEAB_백희성 건축사

Everyplace has a story to tell. It has its “sprit”, a kind of DNA. - Renzo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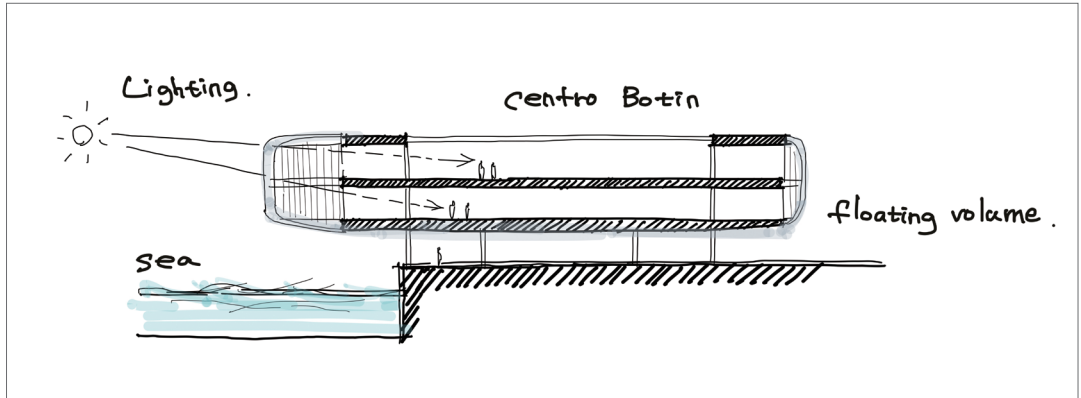
어디를 가나 사연이 하나씩 있고, 어디를 가나 수호신이 있다, 그곳에 담긴 DNA. - 렌조 피아노.

원고를 의뢰받고 필자가 고민했던 것은 어떤 해외건축물을 소개하는가였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보급화된 환경에서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세상 반대편 건축물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건축물을 소개하기보다는 건축 대가들이 어떻게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4개의 건축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렌조 피아노(Renzo Piano)의 스페인 바닷가에 걸쳐 떠 있는 보틴 센터(Centro Botin), 이탈리아 베로나에 있는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의 카스텔베키오 미술관(Castelvecchio Museum), 그리고 조르조 그라씨(Giorgio Grassi)의 사군토 로마극장(Sagunto Roman Theater),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와 렌조 피아노(Renzo Piano)의龐피두 센터(Pompidou Center)이다.

이 4개의 건축물은 모두 장소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해석하고 풀어낸 프로젝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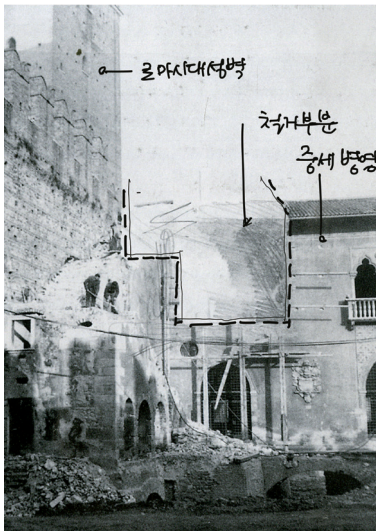
먼저 렌조 피아노(Renzo Piano)의 보틴 센터(Centro Botin)는 스페인 산탄



▲ 필자의 스케치, 보틴 센터(Centro Botin)

데르(Santander)에 축조된 건축물이다. 산탄데르는 스페인의 항구도시이자 칸타브리아 지방의 중심도시이며, 석양의 빛에 얽힌 수많은 신화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건축가는 바로 이곳에서 빛의 이야기에 집중하였고, 바다를 향해 떠 있는 건축물을 제안하였다. 바다의 빛을 향해 날아오르는 건물을 디자인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탈리아 베로나에 있는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의 카스텔벤키오 미술관(Castelvecchio Museum)이다. 이 미술관은 아주 오래전인 로마시대의 요새와 탑으로 이뤄져 있었다. 그러나 1354년~1356년에 조금 더 확장되었고 조금씩 변화하였다.



▲ NICHOLAS Olsberg, Carlo Scarpa architecte : composer avec l'histoire, Centre Canadien d'architecture Québec 1999, p.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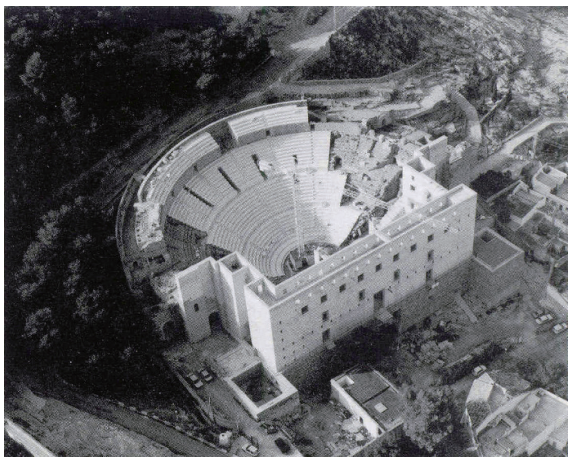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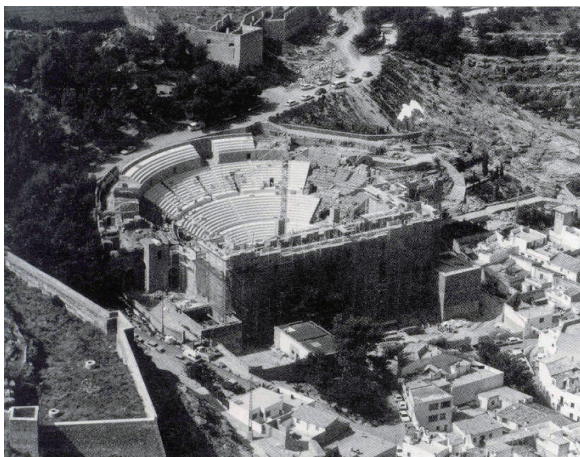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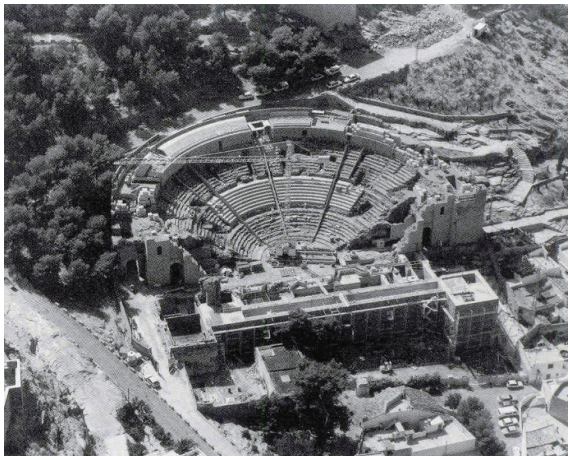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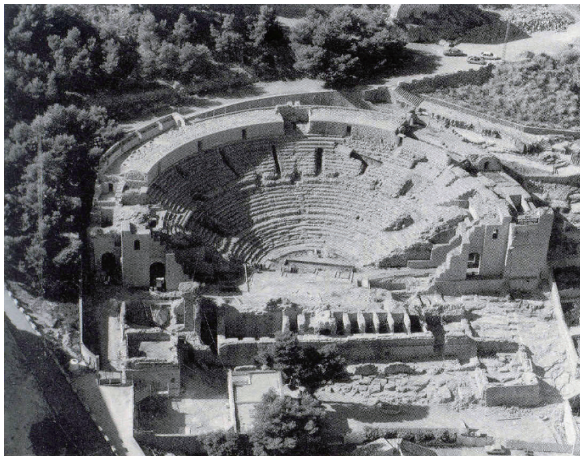
▲ SERGIO Los, Carlo Scarpa, Bbedikt Taschen, Köln 1994, p.82.

그리고 나폴레옹 군에 의해 점령되어 병영으로 사용되기 위해 많은 부분 변형이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많은 건축물이 일제 침략으로 변형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24년~1926년에는 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1962년에 스카르파에게 이 프로젝트가 맡겨졌다. 스카르파는 이 건축물을 로마시대, 중세시대, 나폴레옹시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양한 시대적 증거가 적층된 건축물이라 보고, 그 경계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경계를 드러내기 위해 건축가로서 좀처럼 하기 어려운 시도를 한다. 그것은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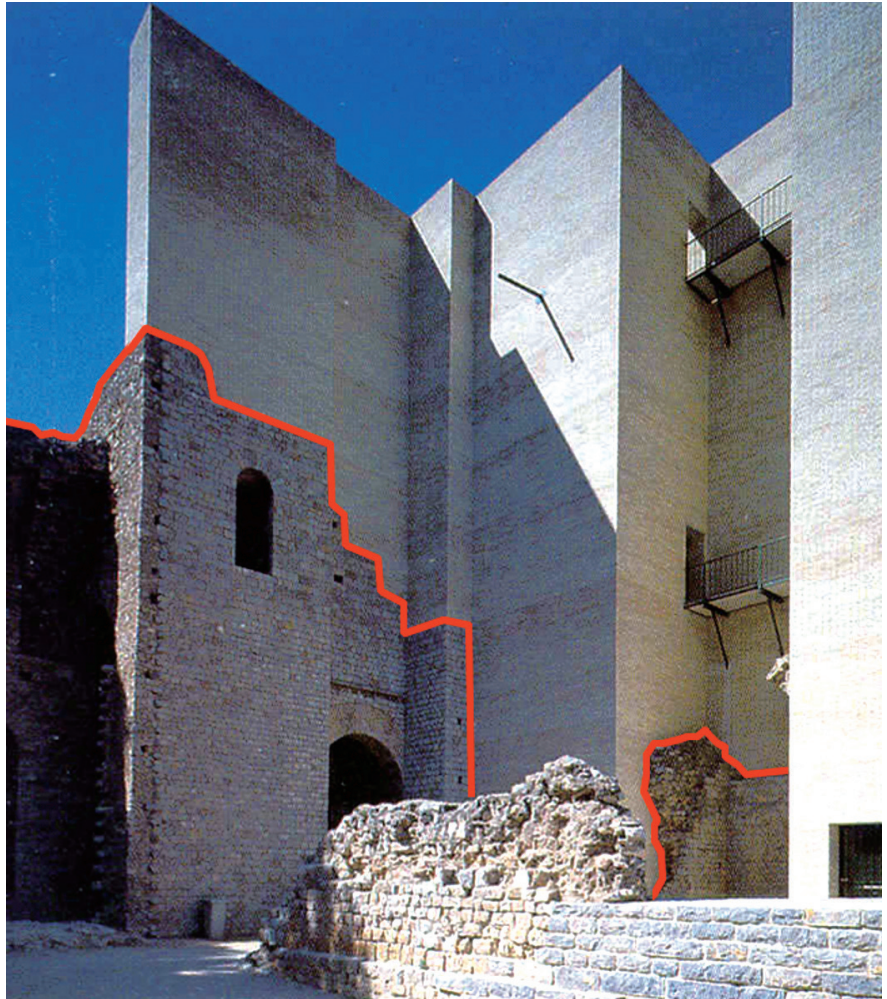
가장 복잡하게 연결된 로마시대 성벽과 중세건물 사이를 관통하던 나폴레옹시대의 계단을 철거하였고, 새로운 열린 계

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열린계단 공간에 베키오 성의 성주이자 베로나의 위대한 정치가의 조각상을 설치하였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토 칸프란체스코 델라 스칼라이다. 건축가는 이 건축물에 가장 적합한 역사적 주인공을 건축물에 이입시켰다. 베로나 베키오 성이 가지고 있는 기억 중 하나인 역사적 인물을 건축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마다 수백만 명이 방문하고 이 조각상은 베로나의 명물이 되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르지오 그라씨(Giorgio Grassi)의 사군토 로마극장(Sagunto Roman Theater) 재사용 프로젝트이다. 로마시대 원형극장의 일부 형태가 드러나고 수많은 시기를 버텨 지금에 이르렀다.



▲ Juan Jose Lahuerta, Giorgio Grassi : I Progetti, Le Opere E Gli Scritti, Electa Milano 2004, p179



▲ Juan Jose Lahuerta, Giorgio Grassi : I Progetti, Le Opere E Gli Scritti, Electa Milano 2004, p184

어떤 이는 로마의 유적은 폐허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 다른 이는 폐허가 아닌 무엇인가를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건축가 그라씨는 로마시대의 조적 구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폐허 위에 로마 원형극장을 완성하였다. 이제 이곳은 폐허가 아닌 공연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극장이 되었다. 2000년 전 로마시대의 원형극장이 앞으로 100년 동안 현대공연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적 사건이 아닐까 싶다. 건축가는 스페인에 있는 사군토지역에 로마시대 원형극장을 현대적 해석으로 복원하였다. 그 땅에 있던 역사적 폐허를 제대로 부활시킨 것이다.



▲ 폰피두 센터의 옛날 자리(큰 마구간의 모습)¹⁾

네 번째로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리처드 로저스와 젊은 렌조 피아노가 작업했던 파리의 폰피두 센터(Centre Pompidou)를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이들이 가보았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았던 현대미술관이다. 광장에 면한 입체 원형 에스컬레이터의 조형성이 일품인 프로젝트이다. 많은 이들이 왜 저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외부에 설치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이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폰피두 센터의 옛날 자리는 규모가 큰 마구간이었다. 말을 타고 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건축가는 이 땅이 가지고 있던 마구간의 기억을 건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렇게 장소성에 담긴 역사를 깊이 있고 다양하게 풀어낸 프로젝트를 보면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장소성이야말로 오랜 역사의 결정체인데, 대한민국은 서구의 어떤 오랜 역사보다도 깊은 장소성을 갖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는 이것이 벤치마킹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지자체에 자문 혹은 회의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벤치마킹 사례 찾기와 성공사례이다. 만약 어떤 지자체에서 뭔가 성공한 콘텐츠가 있다면, 그 사례는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먼저이고 누가 잘 운영하느니 경쟁하게 된다. 결국 그 콘텐츠를 찾던 관광객, 시민들은 곧 흥미를 잃게 된다.

옆집에서 떡볶이 장사가 잘된다는 소문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너도나도 떡볶이



▲ 폰피두 센터(Centre Pompidou)²⁾

집을 차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제 고객들은 떡볶이집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 더는 떡볶이가 흥미로운 콘텐츠가 아니다. 결국 다 함께 떡볶이집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떡볶이집을 따라 하기보단 오히려 다른 메뉴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 거리는 음식문화의 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각 지역에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다. 수원은 물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가뭄 때 물이 마르지 않고, 홍수가 나도 범람하지 않는 곳이다. 광주는 빛고을이라는 의미인데, 실제 세계 3대 일조량 도시이다. 그밖에 서울에서 찾는다고 하면, 장충동은 을미사변 때 마지막까지 명성황후를 지킨 충성스러운 장수들을 기리는 사당이 있던 곳이다. 염창동은 ‘소금 염(鹽)’에 ‘창고 창(倉)’을 쓴다. 소금 창고가 있을 만큼 배수가 잘되고 물이 범람하지 않는 곳이다. 이런 장소의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복제할 수도 없고, 이 장소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콘텐츠인 셈이다. 또한 이 콘텐츠는 공짜로 쓸 수 있다. 누구도 복제 못 하고 우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만드는 문화공간을 상상해 보자. 우리 주변에서 쓸 수 있는 수많은 양질의 콘텐츠인 지역성을 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고 집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1) 출처 : <http://www.goldmustang.ru/news/13374.html>

2) 출처 : <https://www.dezeen.com/2019/11/05/centre-pompidou-piano-rogers-high-tech-architecture/>

TEAM

서산시

046 서산시 '장소' 중심의
공간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

이지은 주무관

서산시 '장소' 중심의 공간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



서산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_이지은 주무관

서산시에서는 경관 보존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본고에서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산 박첨지 놀이마을 경관 만들기 사업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박첨지 놀이마을은 2021년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5억 원(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여 2022년 6월 27일 준공하였다.



▲ 탑곡리 마을과 서산박첨지놀이 사업 콘셉트



1. 경관만들기 계획목표

전통문화와 풍류가 넘치는 마을

떼~루가 떼~루야 박첨지 경관마을

박첨지 놀이전수관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마을경관 연출

| 초점경관 |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전수관 외부시설 정비'

| 진입경관 | 마을의 진입로 '박첨지 한평정원'

| 연속경관 | 함께 가꾸며 만드는 '박 울타리' '아름다운 꽃 길'



"떼루가, 떼루야 : 인형극 중 마당(장)이 바뀌는 부분에서 인형들에게 어서 나와달라는 재촉하는 소리(노래)"



머무르고 싶은 마을

Special Day & Time

박첨지마을을 네트워크화하는 인프라길 조성

다시 찾고 싶은 마을

Special Customer

방문자를 만족시키는 체험, 경관과 흥미로운 시설이 가득한 곳

걸고 싶은 마을

Special Area

전수관 주변 연계경관으로 자연스러운 마을길 산책 유도

▲ 박첨지 놀이마을 경관만들기 사업 계획 목표

2. 기본구상

전통문화와 풍류가 넘치는 떼~루가 떼~루야 박첨지 놀이마을



서산 박첨지 놀이마을 경관만들기

15

▲ 박첨지 놀이마을 경관만들기 사업 기본구상

탑곡리는 서산IC에서 서산 시내로 진입하는 국도 32호선이 통과하며, 탑곡교차로에서 지방도 70호선이 연결되어 차량 이용 접근성이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탑곡리의 대표 문화자원인 ‘서산박첨지놀이’는 2000년 1월 11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박첨지놀이 전수관이 개관하면서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이 전개되었다. 학술대회와 인형극 축제, 보존회 공연팀 활동 등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에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여 지역문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수관이라는 역사 문화자원까지의 접근성 미흡, 주변 편의시설 부족, 자원 특성을 반영한 경관 요소 부재 등의 문제는 자원의 경쟁력과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신청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경관 사업을 진행하였다.

박첨지놀이 전수관이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알리면서 이를 박첨지마을의 첫 이미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을 입구에 한평정원을 조성하였고, 입구에서 전수관까지 가는 길에는 박첨지마을임을 알리는 그래픽 이미지를 적용하였다. 또한 전수관에는 내외부 공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을 조성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활발히 추진해왔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아 마을에 활력을 더할 것이고, 전수관을 중심으로 장소성을 부여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특색있는 경관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사업 후(박첨지전수관 외부시설)



- 박첨지 마을 진입로의 인지성 부족
- 박첨지전수관 중심으로 특색있는 마을 경관의 부재
- 박첨지 놀이전수관 외부시설 인프라 부족 및 경관개선 필요



전통문화와 풍류가 넘치는 마을 떼~루가 떼~루야 박첨지 경관마을

박첨지
한평정원
만들기

박첨지마을의
첫인상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오는 마을



박 울타리,
아름다운
꽃길

박이 넝쿨째
자라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마을길



박첨지놀이
전수관
외부시설 정비

전수관의
내·외부공간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 유도



▲ 사업 전(한평정원 만들기)



▲ 사업 후(한평정원 만들기)



▲ 사업 전(전수관 가는 길 도로 정비)



▲ 사업 후(전수관 가는 길 도로 정비)



▲ 사업 전(전수관 주변 정비)



▲ 사업 후(전수관 주변 정비)



▲ 사업 전(박첨지놀이 파고라 무대)



▲ 사업 후(박첨지놀이 파고라 무대)

서산 대산읍 시내 경관조명 사업

서산시 대산읍에 소재한 한빛쉼터는 2016년 대산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되었으나, 조명이 부족하여 야간에는 어두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공간이었다. 이에, 주변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거주민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2억 원(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된 본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 컨설팅을 3차례 진행하여 전문가 자문을 반영함으로써 장소 특성에 맞는 경관을 창출할 수 있었다.



▲ 한외심터 마스터플랜

- 수목과 벤치가 조성되어 있어 주간에는 일반인의 휴식공간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이용도가 낮음
- 보안등과 조형물 조명 외에는 별도의 조명이 없어 야간에 어둡고 볼거리가 부족
- 주변 상업시설 이용객이나 주민들의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과 위락을 위해 눈부심이 없는 은은한 간접조명으로 야간 환경 개선 필요



쾌적한 빛(Pleasant Light)

거니는 빛
(WALKING
LIGHT)



휴식의 빛
(LIGHT OF
RELAXATION)



즐기는 빛
(ENJOYING
LIGHT)

바쁜 도심 속에서 천천히
거닐며 힐링하는 공간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게공간 제공

사람과 사람,
사람과 빛이 만나는 공간



▲ 사업 전(수목등 및 의자 간접조명)

사업대상지 주변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쌈지공원인 만큼 직접조명을 지양하고 간접조명으로 야간 경관을 연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과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정하여 추진하였다.

2021년 11월 8일 준공을 마치고, 현재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읍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 사업 후(수목등 및 의자 간접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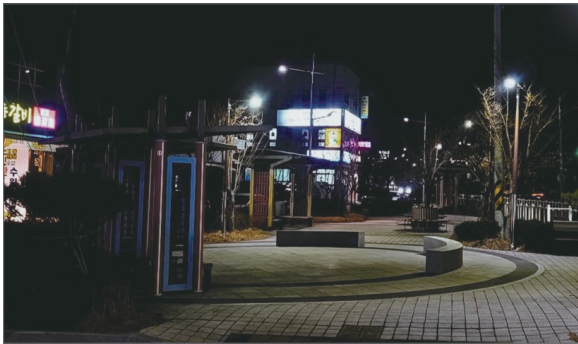




▲ 사업 전(조형물 지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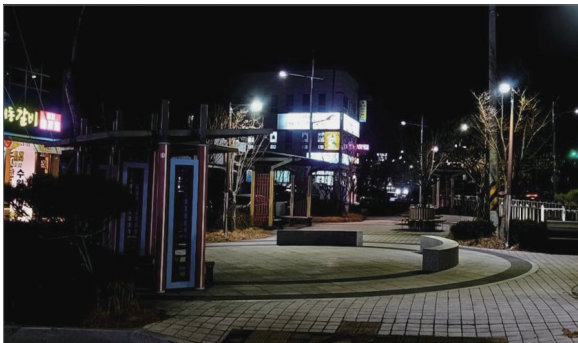
▲ 사업 후(조형물 지중등)



▲ 사업 전(고보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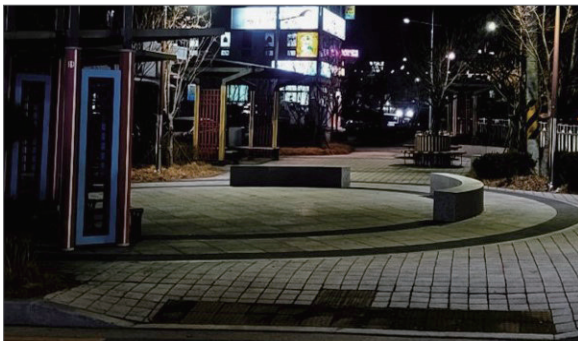
▲ 사업 후(고보조명)



▲ 사업 전(파고라 조명)



▲ 사업 후(파고라 조명)



▲ 사업 전(바닥 포인트 조명)



▲ 사업 후(바닥 포인트 조명)

FOCUS ON

센터소식

056 2021년도 정책연구 성과
060 2022년도 정책연구 소개
061 2014~2021년도 연구성과
062 센터소식

충청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사람들은 모든 시설과 공간을 쉽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간 영유의 권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노인,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왼손잡이 등 사회적 소수들도 모두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노인,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왼손잡이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무장애(Barrier free)디자인을 기본으로 하되 물리적 장애물의 제거 뿐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의 행동 및 심리 특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충청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유니버설디자인 7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념에 기반을 둔 가이드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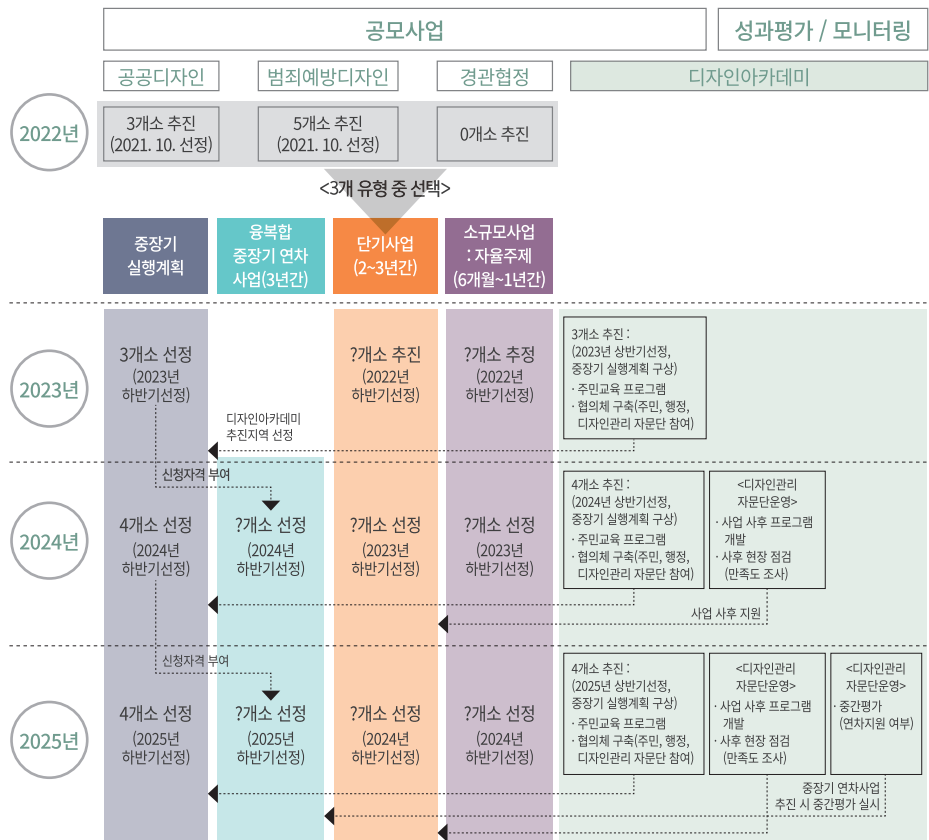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 7가지 원칙

원칙	내용
동등한 사용 (Equitable Use)	모든 사용자가 디자인의 유용함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사용의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사람들마다 다른 다양한 선호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디자인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Intuitive Use)	경험, 지식, 언어 등 사용자 수준에 상관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주위의 상태 또는 사용자의 지각능력에 상관없이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
오류에 대한 관대함 (Tolerance for Error)	위험과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
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사용자가 최소한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 및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신체크기, 자세, 이동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고, 손이 닿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도록 적합한 크기와 공간으로 디자인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방안

개발적·산발적, 부처/부서별 성과위주의 유사사업 중복 추진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중앙부처에서는 타 부처 및 부서와의 연계사업, 각 부처별 법에 근거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통합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충남역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분야, 부서 간 통합을 유도하고자 본 연구에서 충남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발성 단기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및 장소성 관점에서의 접근, 15개 시·군 모두의 공모사업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역량 향상에 기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업 과정 및 사후 유지관리에 주민 참여 유도, 사업의 품질 및 성과 확보 시스템 구축의 4가지 기본방향을 토대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① 중장기적 접근을 통한 부서 간 통합 및 분야 간 융복합, H/W와 S/W의 병행을 위해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공모사업 신설, ②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의 내용 개선,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 ③ 현재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 유형을 융복합 3년간 중장기 사업 또는 현재와 동일한 방식의 2년간 단기사업으로 추진, ④ 6개월~1년간 시·군 특성에 맞는 소규모 사업 신설 등이다.

▼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추진체계 개선방향



충청남도 공공건축 민간전문가제도 개선방안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건축물이나 공간 환경 관련 사업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공기관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 운영하고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수행 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민간전문가 제도 시행 이후 다수의 공공건축가들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공공건축가의 활동 내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며,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 및 참여 주체인 공공건축가, 사업부서, 총괄지원부서의 역할 관계, 공공건축가의 참여방식과 운영 절차 등에서는 실행이나 조정이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1기 충청남도 공공건축가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과정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기 충청남도 공공건축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86개 사업에 44명이 참여하여 총 436회의 자문활동을 수행했는데,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단계별 특성과 공공건축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주로 ‘기획단계’와 ‘설계단계’에서 다양한 범위와 내용의 자문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 절차는 ①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 ② 공공건축가 참여 의사 조사, ③ 공공건축가 활동 및 보고, ④ 공공건축가 활동 기록 및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2년 동안의 제1기 공공건축가 운영 자료를 토대로 각 단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6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운영 규정과 충청남도 운영시스템을 비교하였으며,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한 공공건축가와 사업부서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부서, 총괄지원부서, 공공건축가 사이의 의사전달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각 사업의 목적과 추진단계의 특성에 적합한 공공건축가를 지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건축가의 자문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간소화된 단일체계 내에서 통합적, 효율적으로 자문, 기록, 보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공건축가 제도 주요 운영 단계별 개선방안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

- 사업정보 구체화 : 사업유형(일반공공건축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현재 진행 단계(기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설계 등)
- 자문요청사항 구체화 : 자문대상 사업범위(지역, 단지, 건축물 등), 자문 요청 단계, 특이사항(자문 내용의 특이성, 수시 방문 필요 여부, 현장 특성 등)



공공건축가 참여 의사 조사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 목적, 내용, 참여시기 등 필수정보 효과적 전달
- 참여 희망 공공건축가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공공건축가로 참여 중인 사업 등 포함



공공건축가 활동 및 보고

-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사이의 의사소통 강화
- 보고자료 작성 및 제출 간소화, 지속적 업데이트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

- 사업부서, 총괄지원부서, 공공건축가 사이의 업무 흐름 효율화
- 모니터링 업무 간소화
- 공공건축가 제도의 취지, 공공건축가 역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022년도 정책연구 소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매뉴얼 개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년 제정되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범을 근거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대상을 구별하는 기준 및 심의대상, 시기 등의 사항과 기존 유관 제도와의 차별성 및 실효성 문제,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현행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심의제도 전반에 대하여 추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공디자인법이 제정된 지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과 심의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무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의 관점에서 검토·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과 매뉴얼을 제언함으로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경관심의 기준 개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02.28.)에 의하면, 충남의 공동주택 분양 현황은 2022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1404.7%, 10년간 평균 241.5%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농복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충남의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디자인 관리 방안으로서 2022년 4월 「충청남도 경관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한 심의 기준이 없고 사업주체가 작성한 심의도서들 간 수준 차이가 큰 상황으로, 심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 경관심의 대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충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반영하여 충남의 특성에 맞는 경관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심의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심의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공공건축 조성절차 개선방안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건축의 품질과 수준 향상을 위해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공건축가 제도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 운영 중이다. 공공건축 조성절차에 있어 각 단계의 수행주체나 참여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고, 도와 시군에서 통합적, 혹은 개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이나 특성을 분석하거나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에 반영된 수준을 분석한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기획 수행주체 및 수행내용,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주요 검토 결과 및 보완 요청 사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심의 내용, 공공건축가 참여 단계 및 수행 내용 등을 조사, 분석하여, 각 단계나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각 단계 사이의 연계나 구분이 필요한 부분을 규명하고 공공건축 조성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2021 연구성과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 개선방안 충청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방안 충청남도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방안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경관·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가이드라인 개발 [현안과제]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농촌마을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 고령화 사회의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조사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발전방안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충청남도 관광안내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현안과제] 충청남도 정책홍보 방안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방안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방안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전략과제] 충청남도 경관기록화사업 추진방안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충청남도 홍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공사용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경관,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전략과제]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표 구축 시스템 개발 연구

2022년 상반기 충청남도 「시·군 디자인 네트워크」 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는 4월 21일(목),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군 디자인 네트워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공공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운영 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논산시, 홍성군, 천안시(*발표순)의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표는 강원목 주무관(논산시 전략사업실)의 「논산시 공공디자인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우수한 경관을 만들기 위한 조례, 가이드라인, 운영위원회 등 경관 및 공공디자인 운영체계 확립과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임중구 전문위원(홍성군 허가건축과)의 「홍성군 경관·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소개」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경관·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개발, 경관위원회 운영 등 지속적인 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경관 정책 및 3차원 경관심의」를 주제로 신혜지 주무관(천안시 건축디자인과)이 천안시 경관 정책을 설명하였고, 3차원 경관심의 및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경관심의 운영 시 평면도서의 한계, 심의 도서 간 수준 차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며, 3차원 공간 정보를 활용한 경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발표 내용을 토대로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방식 도입, 심의 및 디자인관리 자문단 지원 방식 개선, 도와 시·군 / 센터의 역할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 담당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시·군 디자인 네트워크」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경관·공공 디자인 관련 주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 상반기 「충청남도 공공건축 관계공무원 교육」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는 6월 23일 오후 2시, 충남 도서관 문화교육동 강당에서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공공건축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충청남도 공공건축 관계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

센터에서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공공건축심의 등 공공건축 조성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축기획 역량을 강화하며 업무수행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건축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금년 상반기 교육에서는 중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에서의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제도 활용,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 및 준비사항, 공공건축사업 기획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주요 확인 사항 등을 교육했다.

첫 번째 교육에서는 오병찬 센터장(센터)이 충청남도 경관, 공공건축, 공공공간,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제도를 소개하고, 사업계획 사전검토나 공공건축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디자인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규모 공공건축사업에서의 컨설팅 활용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지원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두 번째 교육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및 사전검토의 이해’를 주제로 강경연 책임연구원(센터)이 건축기획의 성격과 내용, 사전검토를 대비한 사업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2020년부터 수행한 사전검토에서 자주 논의되었던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부지, 시설규모, 공간구성, 예산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였다.

마지막 교육은 안동수 팀장(충청남도 건축도시과)이 ‘충청남도 공공건축 업무매뉴얼’을 기준으로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를 소개하고, 건축기획 단계에 있어 사업 담당자가 이해하고 수행해야 할 공

공건축가 배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재정투자심사, 건축기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등의 사업 추진 절차와 각 업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세 가지 주제의 교육을 모두 마친 후에는 공공건축사업 초기의 건축기획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공공사업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가’,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등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내 정책동향

068 중앙부처

074 광역지방자치단체

090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중앙부처

건축 및 도시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및 일자리 창출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2021. 12. 22.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으로의 시대 전환에 발맞추고, 미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3대 전략, 7개 과제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① 공공부문 녹색건축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선도, ②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③ 녹색건축 관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전문 역량 강화이다.

국토교통부, 제로 에너지 건물 행정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높인다

2022. 01. 28.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 방지 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 성능 지표를 정비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한다. 주요 내용은 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 간소화, ② 건축물 열손실 방지 조치 합리화, ③ EPI 평가항목 등 정비이다.

국토교통부, 어린이집·병원 등은 2022년 안에 화재 안전 성능 개선해야 정부 지원 가능

2022. 04. 21.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는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울 강서어린이집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

집·병원 등 기존 건축물에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올해 종료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제거하고 준불연 단열재 보강 후, 석재로 마감함으로써 화재 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년도 행복도시 아이디어-제안공모대회’ 우수제안 선정

2021. 12. 1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1년 행복도시 아이디어-제안 공모대회’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버스정류장 지능형 안내 도우미(방기성)’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이야기하기 건물번호판 디자인(원후종)’과 ‘환복용 피팅보드(김화중)’, 장려상은 ‘맞춤 경로 추천 앱 서비스(김건우)’와 ‘청소녀를 위한 전용 여가시설(송혜교)’, ‘출산·돌봄 통합운영시설(장선애)’이 선정되었다.

- 버스정류장 지능형 안내도우미 : 버스정류장 내에 큐아르(QR)코드를 이용하여 인근의 생활편의시설(개방화장실, 쉼터 등)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안내도우미 설치
-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건물번호판디자인 : 행복도시상징물(나무, 꽃, 새) 등을 이용하여 행복도시 고유의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건물번호판 제작
- 환복용 피팅보드 설치(fitting board) : 야외활동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 내 환복용 피팅보드(fitting board) 설치
- 맞춤 경로추천 앱서비스 제공 : 시·공간별 교통량, 시설물 이용객 집중도, 미세먼지 농도 등을 파악하여 최적화 이동 경로 추천
- 청소녀를 위한 전용 여가시설 조성 : 청소녀를 위한 복합기능(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전문상담 등) 여가시설 조성
- 출산·돌봄 통합시설 운영 : 임신, 출산 및 양육 등 출산 전후

경제적, 환경적인 부담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출산·돌봄 종합 지원제도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디자인박물관, 한국 전통의 건축미를 뽐낸다.

2022. 01. 2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공건축추진단 박물관건립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립박물관단지 내 건립 예정인 ‘국립디자인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국립디자인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의 박물관 중 하나로 세종시 세종리(S-1생활권) 문화 시설 용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작 “자연과 길, 일상을 담은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에 충실하면서도 회랑의 연속적 동선계획과 마당의 중첩 배치 등 한국의 전통 건축 요소를 잘 표현하였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을 받았다.

▼ 당선작 자연과 길, 일상을 담은 연속과 흐름의 박물관



행정안전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2021. 12. 15.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설립 예정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 “CheeU in For’rest”는 “평온을 위한 치유 또는 숲속에서의 치유”라는 의미로 숲과 소통하고, 자유로우며,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조성하는 안을 선보였다. 당선작은 내부공간 구획이 단절되거나 폐쇄되지 않게 중앙정원 중심으로 숲을 끌어들이도록 설계하고, 외부공간에서 다양한 치유 활동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어울림마당, 숲속마당 등의 공간을 제시했다.

▼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문화도시로 공주시, 목포시 등 6곳 최종 지정

2021. 12. 23.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3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이번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지역부터 도시 성장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을 겪고 있는 대도시 지역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었다.

▼ 제3차 문화도시 지정[*기초지자체명 가나다순]

지방자치단체*	사업명
공주시	삶을 품은 유산, 미래지역도시 공주
목포시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
밀양시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
수원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지방자치단체*	사업명
영등포구	우정과 현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
익산시	역사로 다(多)이로운 문화도시 익산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예산 1,773억 원으로 공공(작은)도서관 246개 관 건립 및 새 단장 지원

2022. 01. 13.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책기획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도서관 총 246개 관의 건립과 새 단장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관당 봉사인구 수에 도달하기 위해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도서관 건립·운영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의 건립과 새 단장을 돕고자 현장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도서관 건립·운영 자문으로 지어진 공공도서관은 건물 디자인, 장애 친화형, 에너지 자급 등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첨단기술로 관광매력 높이는 지능형 관광도시 6개소 선정

2022. 03. 08.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지능형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규모와 지역관광자원 특성을 고려해, ① 교통연계형, ② 관광명소형, ③ 강소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다. 선정된 대상지와 사업명은 아래와 같다.

▼2022년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유형	지방자치단체	사업대상구역	사업명
교통 연계형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	고래가 만드는 미래의 물결, 스마트웨일시티(Smart Whale City) 울산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제조창 등 원도심과 주변	디지털로 시티 청주! 나를 기록하다
관광 명소형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 황리단길 일원	다시 천년! 경주로 온(ON) 경주로움을 스마트하게 온(ON)하다
	전라북도 남원시	광한루 전통문화 체험지구	흥과 열이 살아 숨쉬는 문화체험 스마트관광도시 남원
강소형	강원도 양양군	서피비치로드	내 손안의 파도, 스마트한 여행! 스마트 서프시티 양양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장터, 최첨판덕, 쌍계사 등	신개념 체류형 스마트관광 마을 다온(茶-on)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 발표

2022-03-11 |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그동안 기초 연구와 전문가 토론회, 지역 의견 수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쳤고 최종심의에서 확정했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을 목표로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②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③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④ 문화교류 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제3차 수정계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연장된 사업 기간에 조성사업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화체육관광부,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릉시 선정

2022. 04. 08.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릉시를 선정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모든 관광객이 교통, 편의시설,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강릉시는 바다와 커피 등 뛰어난 관광자원과 더불어 탄탄한 사업추진조직을 갖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릉시는 연차별로 ① 무장애 관광교통 개선, ②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 ③ 무장애 통합관광 정보 안내, ④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와 전주시에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만든다.

2022. 05. 12. |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문화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대상지를 공모하고, 경상북도, 전주시 총 2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먼저 경상북도는 상주시에 있는 ‘한복진흥원’ 내 공간을 ‘상주 상의원’으로 탈바꿈한다. 명주, 삼베, 인

견 등 전통 섬유산업 시설 등을 기반으로 한복 역사·기술 교육관, 한복 창업 개발소 등 생산, 판매와 연구개발까지 한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공간을 창작소로 만들어 인근에 있는 전주한옥마을, 웨딩거리, 전통시장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곳에서는 한복인과 시민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복 향유 공간을 마련해 한복 상권의 상생과 한복문화 확산의 중심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경관 및 공공공간

국토교통부, 철도역사 유휴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한다.

2022. 02. 22. | 국토교통부 | 철도운영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어린이집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분담한다. 그 외 일부 시설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분담한다. 2022년 3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전국 7개 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어린이집을 전국에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2022. 04. 12. | 문화재청 | 고도보존육성과

문화재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할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수립내용은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비전과 방향, 역사문화권 정책의 안착을 위한 기반조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여 역사문화권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은 지

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 지방 낙후지역,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

2022. 05. 03.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열악한 성장 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특산품 개발,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신안 퍼플섬과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마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

2021. 12. 02.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관광과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 간 관광 분야 국제기구인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4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안군 퍼플섬’과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을 제1회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했다. 전 세계 75개 국가 170개 마을이 응모한 가운데 심사를 통해 44개 마을이 최종적으로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됐는데, 이 중 우리나라 마을 2곳이 선정돼 그 의미가 크다.

신안군 퍼플섬	마을 인구 총 130여 명이 거주하며, 평범한 섬이었던 반월·박지도를 일 년 내내 보랏빛으로 물들여 가고 싶은 관광지로 재탄생시켰다.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마을	마을 인구 총 380여 명이 거주하며, 운곡 저수지 개발로 이주한 거주민들이 고인돌과 람사르 운곡습지를 활용한 생태문화 관광을 통해 고향화, 인구감소 등의 농촌 문제를 해결했다.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사업 통해 방치되던 공간이 주민 활동공간으로 확 바뀐다.

2022. 03. 01. | 행정안전부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예비대상지로 15곳의 민간단체를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방치된 유휴공간 등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꿈꾸는 도토리 협동조합’, ② 세종시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③ 경상남도 거창군 ‘양지 영농조합법인’, ④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지원 마을 100개소 선정

2022. 04. 14.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산업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대상마을 100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농촌관광 회복을 위해 소규모·개별화되는 관광 유행에 맞춰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홍보·마케팅, 마을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위해 연간 총 18억 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대상으로 ‘전남 화순군’과 ‘경북 성주군’ 선정

2022. 04. 28.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복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으로 ‘전라남도 화순군’과 ‘경상북도 성주군’을 선정하였다. 먼저 ‘전라남도 화순군’은 폐광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와 지역 내 외 돌봄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마을 조성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폐광기금의 활용, 돌봄 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상북도 성주군’은 지역의 돌봄 수요와 자연·환경 등 입지 여건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성이 큰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돋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시설로 거리 안전 지키고 도시미관까지 개선한다.

2022. 02. 24. | 행정안전부 | 주소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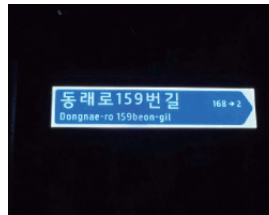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하여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조명형 시설을 설치해 야간에 보행자들의 시인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해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설치기법들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형태는 ‘태양광 조명형 도로명판’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이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디자인의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지역 홍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 주소정보시설 설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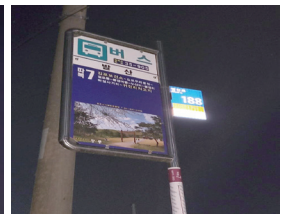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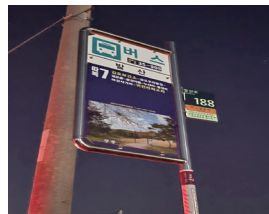
태양광 조명형(LED) 주소정보시설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기도 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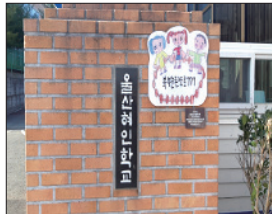
자율형 건물번호판



경기도 포천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울산광역시 중구

광역지방자치단체

건축 및 도시

서울특별시, 은평한옥마을 서희재 등 6개 한옥 서울우수한옥으로 인증

2022. 01. 13. | 서울특별시 | 한옥정책과

서울특별시는 한옥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한옥 건축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총 6개소의 한옥을 ‘제6회 서울우수한옥’으로 인증했다. ‘올해의 서울한옥’으로 선정된 은평한옥마을의 ‘서희재(曙熙齋)’는 공간구성과 형태·기법이 훌륭하며 세부 꾸임에 정성이 가득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외 종로구 견지동 운화헌(雲花軒), 종로구 누하동의 누하동 한옥, 종로구 송인동 성혜헌(成蹊軒), 종로구 옥인동의 옥인동 한옥, 은평구 진관동 소담헌(笑談軒)이 선정되었다.

▼ 제6회 서울우수한옥 선정대상 (6개소)

서희재(은평한옥마을) ★올해의 서울한옥

누하동 한옥(종로구 필운대로)



운화헌(종로구 율곡로4길)

옥인동 한옥(종로구 필운대로9가길)



성혜헌(종로구 송인동)

소담헌(은평한옥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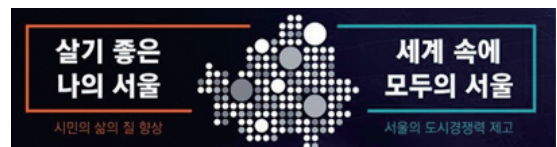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2022. 03. 03.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시는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① ‘보행 일상권’ 도입, ② 수변 중심 공간 재편, ③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④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⑤ 지상철도 지하화, ⑥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시가 추구할 도시변화의 기준점이 될 서울의 미래상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했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미래상



서울특별시, 사라질 뻔했던 공가, 가치 재조명 통해 우수건축자산 등록

2022. 04. 06. | 서울특별시 | 한옥정책과

서울특별시는 종로구 사직동 ‘김중업 건축가 설계 사직동 주택’이 서울특별시 우수건축자산 제12호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사직동 주택은 근대 건축의 거장인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로 건축된 지상 2층, 지하 1층의 조적조 건물이며 지금도 구조 및 재료 등 초기 형태가 온전히 잘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사직동 주택이 1980년대 고급주택의 외관과 특성을 보여

주는 ‘역사적 가치’, 구릉지 저층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고 자연을 끌어들이는 ‘경관적 가치’, 저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예술적 가치’ 등의 건축 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 사직동 주택



부산광역시, 노후 경로당의 따뜻한 변신

2021. 12. 23. | 부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부산광역시가 ‘HOPE with HUG프로젝트’ 제48호,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 제48호 사업의 대상지는 사상구에 있는 ‘엄광부역&경로당’으로, 1983년에 지어진 2층 규모 단독주택 건물이다. 이번 사업은 한 달여 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1층 경로당 공간은 사용하기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2층은 공유 부역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기존의 낡고 높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지역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도록 조성했다.

▼ 리모델링 사업 결과



전국 최초! 폐교 활용한 환경교육 거점시설, 부산에 들어선다!

2021. 12. 30. | 부산광역시 | 환경정책과

부산광역시는 환경부, 부산시교육청, 해운대구와 ‘부산환경 체험교육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체험교육관은 일명 ‘에코스쿨’로 기후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 환경교육의 거점시설이다. 에코스쿨은 반여초 본관 건물에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된다. 건물 내부에는 ① LED 패널을 활용한 부산의 환경 및 미래관, ② XR·VR 등 최신키텐을 이용한 기후시나리오관, 환경주제관, 멀티미디어 교육관, 공유 오피스, ③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존의 공간, 그린테리아, 제로웨이스트샵, 비건쿠칭룸, 환경디지털 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외부에는 생태습지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공간과 지역주민을 위한 텃밭, 테라스 가든, 생태놀이터 등이 조성되어 도심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 조감도



부산광역시,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간 구조 재편에 나서!

2022. 03. 29. | 부산광역시 | 도시계획과

부산광역시는 ‘부산 먼저 미래로’라는 주제로 2040년 부산의 비전과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에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비전이 반영되고, 현대사회의 변화와 기후변화·감염병·4차 산업혁명 등 전 세계

적인 이슈에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부산의 미래가 담겨있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4대 핵심 목표도 제시됐다. 주요 내용은 ① 스마트15분도시, ② 글로벌허브도시, ③ 청년활력미래도시, ④ 탄소중립건강도시 등이다.

인천 개항장의 새로운 역사산책이 시작된다.

2022. 04. 25. | 인천광역시 | 재생콘텐츠과

인천광역시는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다.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사업은 개항기 건축물인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 인천광역시민애(애)집, 이음1977 건물 등과 연계해 인근지역 사유지를 매입하여 역사산책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23년 12월까지 산책로, 쉼터, 문화공간, 웨딩 촬영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체계적 보전·관리방안 마련에 속도 낸다.

2022. 04. 29.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건축과

인천광역시는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① 건축자산의 상세한 조사·기록방안과 체계적 관리방안, ② 건축자산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③ 우수건축자산 지정 및 관리방안, ④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광역시, 공업지역별 관리·정비 계획 마련한다.

2022. 05. 09. | 인천광역시 | 시설계획과

인천광역시는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공업지역의 토지 용도가 산업·주거용으로 혼재된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 신산업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수집된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결과를 기초로 공업지역의 특

성에 따라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업지역을 산업 정비형, 산업 관리형, 산업 혁신형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지역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인천광역시, 석남·가정동 일대 도시재생 구역 리모델링 지원…최대 9백만 원

2022. 05. 31. | 인천광역시 | 고속도로재생과

인천광역시가 ‘2022년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심시가 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낡은 외벽 등 건축물 외부 정비를 통해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성 및 경관개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서구 석남동과 가정동 일대가 대상 지역으로 주택은 외부 경관개선, 상가는 내·외부 개선 리모델링을 지원해준다.

대구광역시, 미래 도시공간 재창조 기반 마련에 역량 집중!

2021. 12. 29. | 대구광역시 | 도시계획과

대구광역시는 미래 도시공간 관리전략 수립과 도시재생 기반 구축, 도시디자인 개선, 취약계층 주거 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 등에 재정과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도시공간 관리전략 수립, ② 머물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재생 기반 구축, ③ 품격있는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④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추진, ⑤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 도시공간 조성, ⑥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⑦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도상가 조성, ⑧ 시민의 편리한 삶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기반 구축이다.

‘방치된 빈집 새 단장’ 대구광역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2022. 03. 03. | 대구광역시 | 도시정비과

대구광역시는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이 포함된 정비 계획을

수립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1월에 수립한 빈집정비 계획은 전수 실태조사에 의한 빈집현황을 토대로 구·군의 지역 현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비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 및 철거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동인동 빈집정비 전/후



▼ 방촌동 빈집정비 전/후



대구광역시, 하반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지 3곳 선정

2022. 05. 26. | 대구광역시 | 민생경제과

대구광역시는 동대구광역시시장, 전자상가, 용산종합큰시장 3개 시장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시설현대화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① 동대구광역시시장의 소방시설을 교체해 상인과 고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② 전자상가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오수 배관 교체 공사를 시행하며, ③ 달서구 용산종합큰시장 아케이드를 신규 설치해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부지 활용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2021. 12. 13. | 광주광역시 |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가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부지 활용을 위해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했다. 아트플라

자 조성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부지 및 기존 객실을 활용한 숙박 공간, 예술인 창작 공간, 문화·교육을 위한 복합예술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2021. 12. 30. | 광주광역시 | 스마트도시담당관

광주광역시가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대표적인 원도심인 동구 충장동·동명동·서남동을 거점으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안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쇠퇴한 원도심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전국 확산이 가능한 구도심형 스마트도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광주광역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2022. 02. 15. | 광주광역시 | 도시정비과

광주광역시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사회·환경적 측면에서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해 새로운 주거 및 도시 정비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거 정비사업 예정 구역 118개소 중 준공구역 및 현재 미추진 구역을 해제해 정비 예정 구역을 50개소로 조정했다.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업 지원센터’ 공모 선정

2022. 03. 31. | 광주광역시 | 관광진흥과

광주광역시가 ‘2022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서구 치평동 일원에 있는 기존 센터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8월 개소한다. 지원센터는 ① 지역 기반 관광 스타트업 창업 지원, ② 관광기업 육성 지원, ③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④ 기타 지역관광 활성화 등 지역 관광기업과 관광 인력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대전광역시, 도심 흉물 빈집 정비 한다... 주민 공동시설로 조성

2022. 04. 01. | 대전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전광역시는 ‘2022년도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018년부터 총 33호의 빈집을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2022년에도 예산을 5개 구에 교부하여 빈집 2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며,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빈집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 정비사례



대전광역시, 불법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인공지능으로 찾아낸다.

2022. 04. 20. | 대전광역시 | 도시계획과

대전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모니터링 분야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활용한다. 새로 도입하는 인공지능(AI) 판독은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여 항공사진 이미지 분석 및 추적기술을 활용해 지형지물 변동과 같은 도시변화를 탐지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판독기술을 기존 위반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에 우선 활용하고, 도시계획, 도시개발, 환경, 교통 및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로 그 활용도를 넓혀갈 구상이다.

“숲과 정원이 있는 녹색도시 울산 조성”

2022. 02. 09. | 울산광역시 | 녹지정원과

울산광역시는 ‘2022년 녹지 정원 시책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녹지·공원·산림·정원 분야 추진정책, 사업별 추진계획 및 현안 사업,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2022년 울산광역시 녹지 정원 시책에 따르면 ① 일상 회복을 위한 녹색 치유 공간, 녹색 기반 구축, ②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숲의 가치와 역할 재조명, ③ 사계절 안전한 산림재해 선제 대응 및 산림자원 육성, ④ 큰 평화 태화강 국가 정원 계획 추진, ⑤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정원문화 정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명품 울산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 발표

2022. 03. 29. | 울산광역시 | 정책기획관

울산광역시가 ‘명품 울산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을 자연과 전통이 숨쉬는 공원으로 조성, ② 차(茶) 문화센터 조성, ③ 특색 있는 다양한 이야기(테마) 시설을 설치하여 생동감 넘치는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 ④ 야생화단지, 산책로, 광장, 주차장 조성 등이다.

울산 앞바다에 ‘해저도시 건설’ 본격 추진

2022. 04. 13. | 울산광역시 | 해양항만수산과

울산광역시가 ‘해저도시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울산광역시는 오는 2026년까지 ‘수심 50m, 5인 체류’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심 30m, 3인 체류’ 실증이 가능한 모듈형 해저거주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육지와 완전히 독립된 바닷속 거주공간을 만들기 위한 해저 공간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하는 연구를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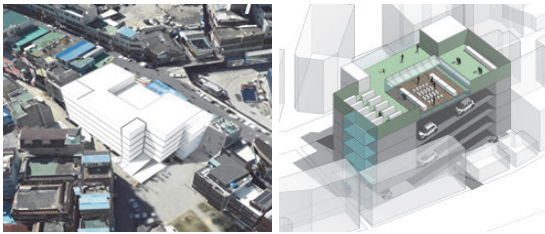
경관 및 공공공간

서울특별시, 문화센터·마을주차장... 2025년까지 노후 저층 주거지 11곳에 생활SOC 신규 확충

2021. 12. 23. | 서울특별시 |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는 '저층 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서대문구 남가좌동 등을 선정, 2025년까지 생활SOC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년 신규 사업지 11개소는 노후 저층 주거지 중 특히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거나 '가로주택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지 위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도보 10분거리(500m 이내)에서 작은 도서관, 소규모 주차장, 어르신 쉼터, 공원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하나로 2019년에 시작됐다.

▼ 서대문구 <남가좌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 관악구 <백제요지 근린공원 조성사업>



서울특별시, 낱씨·미세먼지 구매 없이 이용 '실내형 공개공간' 지방자치단체 최초 도입

2022. 01. 03. | 서울특별시 |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가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시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계 보고 '암사동 생태·경관보전 지역' 두 배로 늘어난다.

2022. 01. 06. | 서울특별시 |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는 '암사생태공원' 인근을 '암사동 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암사생태공원'도 완충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구역인 기존 지정 지역에 완충구역인 암사생태공원까지 더해져 확대됐다. 시는 기존 지역의 자연 생태적 가치와 연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공예박물관, 제7회 한국문화공간상 수상

2022. 01. 20. | 서울특별시 |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서울공예박물관이 제7회 한국문화공간상을 수상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북촌과 안국동의 도시 문화적 맥락에 새로운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서울공예박물관 전경사진(전시1동-안내동-전시3동)



▼ 서울공예박물관 전경사진(교육동-어린이박물관)



서울특별시, ‘시민주도 도시녹화’ 230개소 9억 원 지원… 주민 제안 사업 공모

2022. 01. 24. | 서울특별시 | 조경과

서울특별시는 ‘2022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 제안 사업’을 실시 접수한다. 본 사업은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여 대상지를 조성하는 ‘녹화재료 지원사업’과 예산 지원을 통해 대상지를 조성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마포구 일상 공간 내 유휴부지, 골목 등 녹화 전·후



서울 신설동역 옛 승강장 ‘버려진 유령공간’ → ‘서울 미래유산’ 재탄생

2022. 01. 27. | 서울특별시 |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서울 지하철 1·2호선 신설동역의 옛 미사용 승강장이 ‘신설동 2호선 비영업 승강장’이라는 이름으로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서울 미래유산’에 선정됐다. 지하철역 중에서는 12

번째다. ‘서울 미래유산’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을 서울특별시가 선정, 보존하는 문화재이다. 시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해 나가려고 하며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촬영지 등 기능 확대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하였다.

서울특별시, 남성·장애인 등도 편리한 ‘육아 편의 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모델 개발

2022. 03. 22. | 서울특별시 |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육아 편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을 개발했다. 이는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 형태의 책자 및 e-Book으로 만들어졌다. 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인터뷰를 통해 ① 수유 및 이유 공간, ② 배변 공간, ③ 휴게 및 놀이공간 등 육아 편의 공간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영유아 보호자들이 자주 겪는 불편 사항과 시기별로 다양한 행태를 보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공간구성을 제시했다.

▼ 육아편의공간 시범 적용 사례



인천광역시, “초등학생들이 아이디어 내고 디자인하고…‘참여형 놀이터’ 조성”

2022. 03. 24. | 인천광역시 | 환경녹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 안에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참여형 놀이터를 추진하고 있다. 참여형 놀이터를 추진하게 된 것은 공원 조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관심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꾸민 공원이 지역특화 장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에 따라 협의를 거쳐 인근 현송초교 6학년 2개 반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기획단’을 구성, ① 내가 경험한 최고의 놀이터 그려보기, ② 체험의 숲에서 하고 싶은 활동 도출하기, ③ 체험의 숲 주제에 따른 활동 시설물 그리기, ④ 가장 마음에 든 그림에 투표하기 등 아이들이 놀이터의 모습을 직접 디자인해보고 각자 구상한 생각을 표현하는 ‘체험의 숲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서울특별시·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 그린플러스 도시숲 조성

2022. 04. 28. | 서울특별시 | 공원조성과

서울특별시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아이들과 미래재단과 ‘그린플러스 도시숲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그린플러스 도시숲 프로젝트’는 서울시 내 훼손되거나 방치된 녹지공간에 다양한 수목을 심어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4개 대상지에 도시숲 및 공원을 조성하고 매년 대상지를 새로이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① 사업의 기획, 실행 및 유지관리, ② 사업의 홍보 및 환경개선 효과 증진, ③ 시민 참여 등 녹색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④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해 민·관 협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 지방선거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 남산도서관 야외 독서공간 조성

2022. 05. 19. | 서울특별시 |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환경공단, 롯데홈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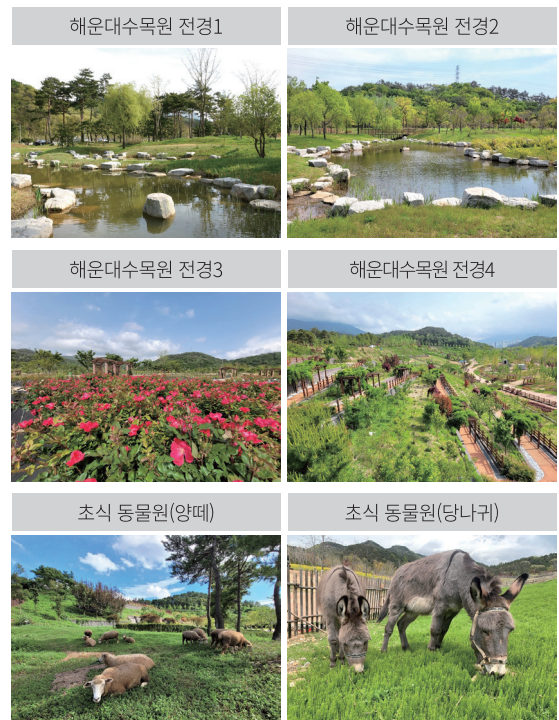
과 ‘자원순환 및 사회가치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현수막 및 폐의류를 건축자재로 활용한 남산도서관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에 협력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① 지방자치단체 연계 폐현수막 수거 운반 지원, 사업 홍보, ② 기업 사회가치경영 실천을 위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남산도서관 친환경공간 조성, ③ 재활용 제품을 이용한 환경교육 지원 등이다.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시대 모범사례… 해운대수목원, 시민 쉼터로 자리매김

2021. 12. 29. | 부산광역시 | 산림녹지과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이 개방 7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누적 관람객 24만 명을 돌파했다. 시는 1단계 구역과 주차장을 포함하여 전체 19만 평 중에서 13만3천 평을 우선 개방해오고 있다. 시는 2022년에 장미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해운대수목원에서 부산정원박람회를 개최해 국내·외 유명한 조경전문가를 초청하고, 작가정원을 조성하여 한층 더 볼거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 현장사진(수목원 전경, 장미원, 양떼방목, 당나귀)



부산광역시, 어린이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 조성 나선다!

2022. 01. 19. | 부산광역시 | 산림녹지과

부산광역시는 아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도심 속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한다. 2022년 대상지는 5개 초등학교로, 지난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5곳에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한 바 있다. 시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수목과 화목류를 식재하고, 곤충서식지 등을 조성하여 도심 속 살아있는 생태 복원지이자 자연체험·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등하굣길 조성



2022년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신규 사업 대상지 17개소 선정

2022. 03. 25. | 부산광역시 | 교육협력과

부산광역시는 2022년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신규 대상지 17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17개소는 올해 말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시는 들락날락 브랜드디자인(BI) 및 공간 조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을 통해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와 공간의 전문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산 전역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500개소를 설치하여 15분 생활권 내 어디서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우수공공기관 선정

2021. 12. 05.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건축과

인천광역시가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모든 건축물과 공공사업에 적용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개선으로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셉테드(CPTED) 사업과 방범창, 방범망 등을 지원하는 방법 시설 설치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 2022년 여춘뉴딜 공모 선정.. 389억 원 추가 확보

2021. 12. 06. | 인천광역시 | 수산과

인천광역시는 2022년 여춘뉴딜300 사업 총 3개소와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 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했다. 선정 대상지는 중구 덕교항, 강화군 외포항, 옹진군 두무진항의 3개소이며,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옹진군 문갑항이 추가 선정되어 어항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특화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을 위해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다운’ 경관, 시민과 함께 조성

2021. 12. 12.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건축과

인천광역시는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시민협력단’을 모집한다. 이는 인천만의 차별화된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해 인천을 보다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민협력단 운영을 통해 인천 시민에게 의미 있는 장소와 생활문화 등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민협력단을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나 공간, 풍속이나 행사, 예술 소재나 이야기 등을 발굴하고 개발할 방침이다.

인천 지역경제 살리기, 야간활성화에서 답을 찾다.

2022. 03. 15.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건축과

인천광역시는 도심 속 야간명소와 야간경관시설을 3월 15일부터 일제히 점등하고 운영시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한다. 또한 주요 도심 속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 인천만의 미디어아트와 시정 홍보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광역시, 화려한 야간경관...영종국제도시 관광 명소화 사업 착수

2022. 03. 28. | 인천광역시 | 영종청라기반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국제도시 관광 명소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① 제3연륙교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파사드 연출과 짙라인, 옛지워크, ② 씨사이드파크 송산을 중심으로 하는 야간경관, 파크골프장 등 ‘체험형 관광 명소화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IFEZ 글로벌 시민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180m 전망대,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야간경관을 통해 영종 국제도시가 관광 레저 복합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도시에 색과 디자인을 입힌다.

2022. 03. 29.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건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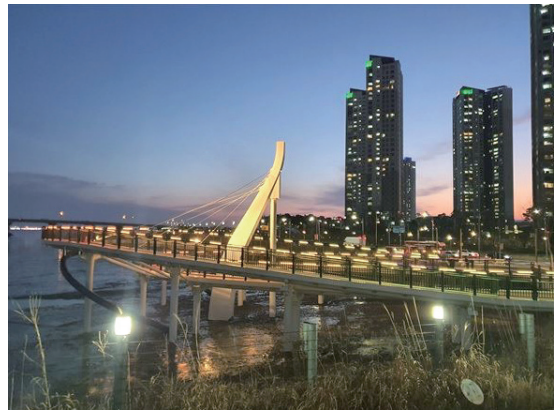
인천광역시는 2022년 ‘시민을 위한 인천디자인 명소 조성’을 주제로 군·구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선정한 28개 디자인 명소화 사업은 ①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사업 : 동구 현대상가, 미추홀구 용현5동, 남동구 성리중학교 일원, 부평5동 안심마을, ② 야간명소 조성 사업 :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으로 자유공원 일원과 소래 수변 지역, ③ 색채디자인 : 인천 색으로 도시에 색을 입혀 인천의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곡초등학교와 마전중학교 일원, 계산3동 일원, 승기천 교량 하부, 효성고, 인천광역시청사 통합안내표지, 보행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소래 해님이 전망대 개방 ...바다전망대, 해안광장 갖춰

2022. 04. 04. | 인천광역시 | 해양친수와

인천광역시는 ‘소래 해님이 전망대 조성공사’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폭 46m, 길이 84m 규모로 조성됐으며, 상부는 목재 데크와 강화유리로, 하부는 강관 구조물로 구성되어 소래 갯벌 포구의 어선을 상징화했다. 또한, 전망대에는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해 어두운 밤에도 빛을 내도록 했고, CCTV를 설치해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 소래 해님이 전망대 조성 사진



대구광역시의 ‘도로’란... 걷고 싶고, 쉼이 있는 공간

2021. 12. 19. | 대구광역시 | 서대구역세권개발과

대구광역시는 차로 폭 및 차선을 축소하고 확보된 공간은 보행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등 자동차 중심 교통문화를 보행자,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걷고싶은 대구, 워커블 시티’ 시범 구간을 선정하고 보행자 및 친환경 교통중심 도로로 조성해 나간다. 시범 구간 주변에 추진 중인 재건축 현장의 교통처리 계획도 대구광역시 계획에 따라 보행자 및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전역을 8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권역별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다이어트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투시도



대구광역시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 분야’ 우수기관 선정

2021. 12. 19. | 대구광역시 | 환경정책과

대구광역시가 ‘전국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기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으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불필요한 빛공해를 줄이고 밤이 아름다운 대구를 실현하며 2023년까지 빛공해 초과율을 3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① 조명기구의 친환경적 설치 관리방안 마련, ② 조명개선사업을 통한 빛환경 개선, ③ 사전 빛공해 관리체계 강화, ④ 빛공해 방지 관리기반 구축, ⑤ 빛공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빛공해 저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대구광역시 무장에 관광, 환경개선 사업으로 거듭나다

2021. 12. 23. | 대구광역시 | 관광과

대구광역시는 무장에 관광지 13경을 대상으로 ‘무장에 관광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대구광역시 무장에 관광지 환경개선 조사용역’을 실시해 관광 약자들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준비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무장에 관광지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티커 및 점자 안내판 부착, 거동이 불

편한 분들을 위한 휠체어 및 휠체어(유모차) 덮개 구입, 휠체어 바퀴가 빠지지 않는 배수로 설치를 완료했다.

대구광역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정원형 띠녹지’ 조성

2022. 03. 22. | 대구광역시 | 산림녹지과

대구광역시는 기존의 띠녹지와 차별화된 ‘정원형’ 띠녹지를 조성한다. 대구광역시는 2022년 중구 달구벌대로, 동구 공항로, 서구 국채보상로의 3개 구간에 정원형 띠녹지를 선보이고 향후 구간을 점차 확대해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가로수길을 명품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대구광역시는 가로수의 뿌리 돌출을 예방하고 생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띠녹지 768개소, 215km를 조성 완료했다.

▼ 정원형 띠녹지 조성 모습



“2040 광주 도시경관 이렇게 만들어요”

2021. 12. 15. | 광주광역시 | 도시경관과

광주광역시는 ‘2040 광주 경관계획 시민참여단’으로부터 광주 도시경관의 미래비전이 담긴 시민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시민참여단은 도시경관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경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순수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시민참여단은 경관계획 소양 교육과 토론을 통해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미래

비전 설정을 위한 시민제안서 10개 조문을 도출했다. 광주광역시 시민제안서를 바탕으로 「2040 광주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2022년 1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전면 시행

2021. 12. 30. | 광주광역시 | 대기보전과

광주광역시는 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관리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 및 새로 설치되는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용도지역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인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 조치명령을 내린다.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 선정

2022. 06. 07. | 광주광역시 | 도시경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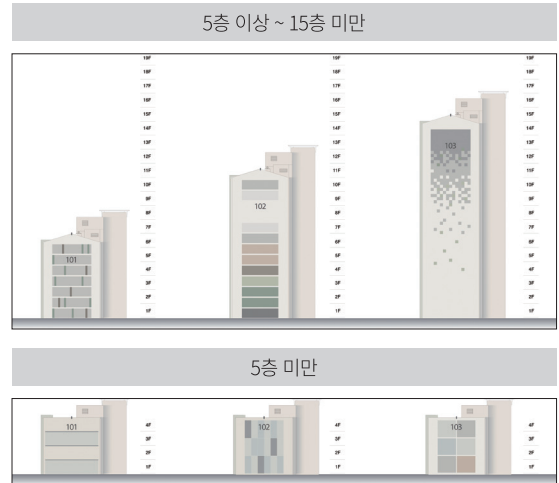
광주광역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계림초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문화 가이드를 적용한 보행환경 조성, 통학로 주변 시각 단절구간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결절지, 단차 개선 등 시설 개선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기존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 강화

2022. 02. 10.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문가 디자인 컨설팅 및 도장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도시경관 권역별로 색 조합,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시환경색채계획」과 「도시디자인계획」을 토대로 내·외부 전문가의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지역 및 아파트 특징,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외벽 도장 비용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예시그래픽



대전광역시, 둔지미 폐지하보도, 외국인 주민 소통 공간으로 변신한다.

2022. 03. 18. | 대전광역시 | 건설도로과

대전광역시가 행정안전부 ‘2022년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둔지미 폐지하보도’를 외국인 주민 간 소통 공간, 대전광역시민과의 교류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부지확보도 필요 없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지원시설 등 타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과 대전광역시민들의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울산광역시, ‘2022년 도심 속 주제(테마) 정원 조성 사업’ 추진

2022. 03. 15. | 울산광역시 | 생태정원과

울산광역시는 ‘2022년 도심 속 주제(테마)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2곳으로, 중구 성남동 어린이역사체험관 일원은 어린이의 동심을 담은 아기자기한 골목 정원으로 준공될 예정이며, 남구 신정동 신정공원 일원은 오색 히아신스 테마정원 및 휴게공간으로 준공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주제 정원이 조성되면 도시숲정원관리인, 시민정원사, 큰애기 정원사, 공원돌보미 등이 함께 유지 관리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 부산광역시 첫 번째 등록문화재로 등록!

2022. 01. 05. | 부산광역시 | 문화유산과

부산광역시는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를 부산광역시 첫 번째 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비석마을은 ‘산 자의 주택’과 ‘죽은 자의 묘지’가 동거하는 역사적 공간이자, 한국 전쟁 당시 부산으로 내려온 피란민들의 생활상과 주거의 변화양상이 잘 보존된 도시공간으로 부산 지역에서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부산광역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됨에 따라, 향후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역사보존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 아미동 비석마을 전경



인천광역시, 희망을 넘어 ‘더불어마을’로

2021. 12. 16. | 인천광역시 | 주거재생과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더불어마을 사업지로 5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마을은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주민이 원하는 마을 공간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수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집수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 재생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구에서 가장 요청이 많았던 더불어마을 사업 가이드라인과 주민 의사 확인

및 결정 방안 등을 제시했고, 그 밖에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더불어마을 주민대상 참여형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 ‘주민과 함께, 가장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추진

2021. 12. 29. | 대구광역시 | 자치경찰정책과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과 함께, 가장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대구달서경찰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 및 치안 만족도 향상을 사업목표로 설정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생활안전 시설물(스마트-폴, LED 보안등 등)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단속 CCTV, 과속방지턱 등)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생태문화마을, 테마형 디자인 시티로 조성한다!

2022. 01. 06. | 광주광역시 | 녹지정책과

광주광역시는 북구 충효동 일원에 조성 중인 생태문화마을을 테마형 디자인 시티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원효사 노후 상가 주변 무등산 심층부를 자연 복원하기 위해 원효사 상가를 북구 충효동 일원으로 이주하고, 특색 있는 경관 환경을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성 부지에는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퓨전 한옥 숙소 힐링촌, 경관 단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202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68곳 선정

2022. 03. 28. | 광주광역시 | 자치행정과

광주광역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광주형 마을자치공동체 조성을 위해 4개 부서가 통합공모로 추진한 ‘202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168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① 광주형 협치 마을 모델, ② 마을교육공동체, ③ 마을분쟁 해결센터 소통방, ④ 청소년 화해놀이터, ⑤ 공유축진사업, ⑥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⑦ 여성 가족 친화 마을, ⑧ 도시농업 특화 마을 등 8개 사업이다.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 마을주민 협력사업 추진

2021. 12. 21. | 울산광역시 | 반구대암각화

울산광역시는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반구대암각화 마을주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연양읍 대곡리와 두동면 천전리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반구대암각화대곡리주민보존사업단’이 위탁 운영하며 ① 반구대 친환경 저속전기 셔틀버스 운행, ② 반구대암각화 주차장 관리, ③ 차량 불법주정차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④ 반구대암각화 탐방로 환경정비 등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는 한편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

울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사업’ 추진

2022. 04. 04. | 울산광역시 | 생태정원과

울산광역시는 ‘2022년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2곳으로 중구 서동 일원은 자연주의 정원, 유실수 정원, 심터 정원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고, 북구 중산동 약수못 일원은 통행 박스 꽃 벽화, 수목 및 꽃밭 정원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서울특별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안심마을보안관 및 스마트보안등 설치

2022. 01. 26. | 서울특별시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서울특별시는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효과가 높아 2022년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격 시행하고 있다. 먼저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올해 전문 경비업체를 선정하여 4

개월간 15개소에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은 올해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장소에 총 2천여 개의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및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진



부산광역시,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 시민이 직접 결정한다!

2022. 01. 02. | 부산광역시 | 도시계획과

부산광역시는 ‘15분 생활권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를 자치구·군 대상으로 진행하여, 3개 분야에서 근린·복합생활권 2개 유형 16개 사업을 발굴·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별 주요 사업은 ① 15분 생활권 분야에 문화·체육·복지·건강 지원시설, 공영주차장, 보행환경 개선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 사업, ② 디지털 스마트 분야에 ICT 기반 생활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조성 등 일상의 비효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사업, ③ 그린 인프라 분야에 녹지공간 조성 및 환경기초시설의 다기능화, 물순환 체계 구축 등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견인 사업이다.

부산광역시, 전국 최초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추진!

2022. 01. 20. | 부산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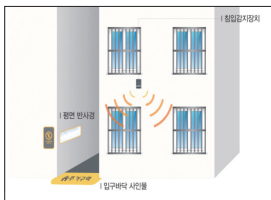
부산광역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룸 밀집 지역동에 ‘여성 친화형 1인가구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사업대상지인 금정구 장전동, 남구 대연동 원룸 밀집 지역에 ① 혁신 셉테드 인프라 조성, ② 범죄 취약 가구 방법 시설 지원, ③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셉테드(cpted), ④ 환경디자인 특화 등 4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시뮬레이션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사업 개요도



스마트방범시스템



좁은 막다른 골목 안전 시스템



안심 지킴이 집 예상도



부산광역시·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진구 대학가 주거안심을 위해 합심!

2022. 04. 18. | 부산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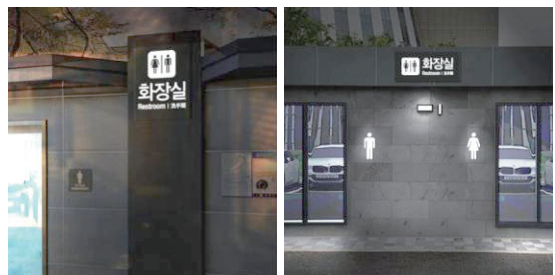
부산광역시는 부산진구 동의대 인근 원룸 밀집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주거 집중지역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구 대연동, 금정구 장전동 일대의 안전복합타운 조성 추진에 이은 세 번째 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이번 사업에는 동의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동의대 학생들이 주민 설문조사와 셉테드(cpted) 설계·시공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며, 사회공동체 연계 프로그램과 범죄예방 안전교육, 강통 전세 예방을 위한 부동산 계약 교육 등 주거 안심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으로 시민 생활을 쾌적하게, 안전하게 바꾼다!

2022. 01. 27. | 인천광역시 | 대변인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8차 개발 용역’을 통해 화장실 안내사인 가이드라인과 흡연구역·흡연부스 디자인을 개발했다. 먼저 통일성 있는 화장실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인지가 쉬운 정보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화장실 내·외부 안내사인에는 야간 인지강화를 위해 조명을 추가했고 반려동물이 외부에서 기다리는 곳을 알리는 안내사인 등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도 반영했다. 다음으로 길거리 흡연 방지 및 금연 인식 강화를 위한 흡연구역·흡연부스 디자인은 민간용과 공공기관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했다.

▼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8차 개발 디자인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확산

2022. 03. 11.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건축과

인천광역시는 ‘제3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인증 품목에는 가로등, 보안등, 불라드, 보행자 펜스, 교량용펜스, 자전거도로펜스, 벤치, 파고라가 선정됐다. 선정된 인증제품은 3년 동안 인증사용 권한을 부여받고, 인증 기간 만료 후에는 재인증을 통한 인증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디자인 심의 면제 및 제품홍보 등 인센티브를 얻는다.

인천광역시, 대학생과 손잡고 디자인도시 만들기에 박차

2022. 03. 17.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건축과

인천광역시는 디자인 분야 전공 대학생들과 관학 협력 프로젝트 ‘2022 I-DESIGN 100’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된 협력 대학은 6개 대학 7개 학과로 1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장소(공간)를 위한 디자인, 인천광역시민의 편의 및 경험을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및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적 접근방법을 통해 인천만의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해 인천지역의 주요 현황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도시문제 진단 및 디자인 사업대상지 도출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공포

2022. 04. 21.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건축과

인천광역시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 조례 명칭을 법령에 맞춰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일치시켰으며, 각 장을 신설해 조문의 체계와 법령 용어 등을 정비했다.

거리의 작품, 공공조형물 … 인천광역시, 관리체계 개선 나서

2022. 05. 13.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건축과

인천광역시는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내 모든 공공조형물 543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산하 공공기관 등이 동시에 시행한 이번 조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철거 실태, 상태 및 보수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를 참고해 공공조형물 제도를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개선 주민참여로 효과 특출

2022. 02. 02. |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대구광역시는 2021년 4월 주민제안서를 접수해 담당 부서 검토 및 현장 확인, 분과위원회심사, 온라인 및 현장 투표를 거쳐 최종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 9개소를 선정했으며, 2022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 사업은 도시환경개선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공원, 학교, IC하부, 지하철도 등 다양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 경관개선 및 환경 정비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울산광역시, ‘울산색 품질인증제’ 도입 시행

2022. 05. 23. | 울산광역시 | 도시재생과

울산광역시는 「울산색 품질 인증제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인증제는 울산만의 특색 있는 도시 색채 경관 활성화를 위해 제품 개발 시 ‘울산색’ 적용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울산색 품질 인증 절차’는 접수된 제품 시편을 색채 전문기관이 검수하여 기계 측색 및 육안 측색 검사를 시행하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각종 심의 및 공공시설물 건립 등 사업추진 시 우선 사용을 권고하게 된다.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건축 및 도시

천안시, 국토교통부 주관 민간전문가 운영 공모사업 선정

2021. 12. 16.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천안시가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총괄·공공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성화해 공공 건축 통합관리와 건축기획의 전문성 강화,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 공간환경전략계획에는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통합 추진될 수 있는 비전과 기본구상을 담는다. 급격한 도시팽창에 따른 녹지율 감소, 열악한 도시 보행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개선 및 건축·도시·조경 관련 사업을 기능적으로 연결해 공공공간과 공공건축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기대된다.

천안시 건축안전센터, 시민이 안전한 ‘건축안전’문화 조성

2022. 01. 06.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천안시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센터를 건축물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책임 기구로 육성하고, 센터를 통해 민관이 함께 안전을 생각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건축물 안전 정책의 신뢰성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건축 구조(내진) 기준 기술검토 및 확인을 수행하고,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감리 감독 및 사용승인도서 기술검토와 현장 확인을 수행한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노후 또는 붕괴위험 등 건축물 안전점검이나 현장점검, 기술 지원 등에 나선다.

공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 개선 주력

2022. 01. 19. | 공주시 | 경제도시국 경제과

공주시가 2022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제162차 정례브리핑에서 ① 기업 유치 기반 조성(서민경제 활성화(남공주 산업단지 조성, 공주페이와 공공 배달앱 지원), ② 행정수도권 시대를 대비한 미래성장 기반 구축(동원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사업, 제2금강교 건설, 공주~세종간 광역BRT사업), ③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옥룡동·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충청 감영길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등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공주산성상권 여행자센터 개소...복합 문화공간 조성

2022. 03. 07. | 공주시 |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공주시 산성시장 문화공원 내 기존 카페마루를 새 단장해 조성한 ‘공주산성상권 여행자센터’의 개소식이 열렸다. 여행자센터는 공주산성상권 르네상스 사업 중 상권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여행자센터는 산성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 구매고객에게 무료 엽서 쓰기 기회를 주는 ‘편지카페’와 산성시장 상인들이 운영하는 ‘라디오방송국’, 상시 판매방송이 가능한 ‘판매방송 제작실’로 꾸며졌다.

공주시, 청년 활동 거점공간 잇따라 조성

2022. 03. 08. | 공주시 | 여성가족과 인구청년정책팀

공주시는 청년 자립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센터’가 중동 일원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한식 목조 구조로 조성된다고 밝혔다. 지상 1층은 청년들의 만남과 교류, 휴식의 공간으로, 지상 2층은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과 토론의 공간으로, 지하 1층은 청년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쉼터 공간인 '청년 공유공간'이 강남(중동)과 강북(신관동)에 한곳씩 건립된다. 청년 공유공간의 명칭은 '일루와_유'로 최종 결정됐다.

▼청년센터 전경



▼청년 공유공간 내부 모습



보령시,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2021. 12. 20. | 보령시

보령시가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기존 동대동에 있던 종합사회복지관을 철거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기능과 서비스를 보완한 생활 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 세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총 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산시, 시민 생활 중심 녹색 공공건축 건립 순항...

2022. 04. 18. | 아산시 | 공공시설과

아산시가 생활 중심 공공건축 건립 추진으로 더 나은 공공행정서비스 제공과 50만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성큼 다가서고 있다.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배방월천도서관,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둔포국민체육센터 사업을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시의회청사(증축),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복합건축물은 2023년 준공 예정이다. 아울러 온양온천시장복합지원센터도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둔포국민체육센터 조감도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서산시, '공공건축팀' 신설... 힘찬 출발

2022. 01. 20. | 서산시

서산시가 '공공건축 전담팀'을 신설했다. 공공건축팀은 건축물 건립 시 필요한 설계·공사 등의 지원으로 예산 절약을 돕고, 획일적 설계에서 벗어난 시민 중심의 공간 설계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건축법·행정절차·관련 규제 등에 대한 전문지식의 자문역할을 통해 부서별 건축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논산형 세일즈, 2022년 정부예산 7천억 원 돌파, 스마트 국방혁신도시 조성 탄력

2021. 12. 07. | 논산시 | 참여예산실

논산시가 2022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2022년도 논산시 예산은 정부의 핵심 사업에 발맞춰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의 '2022년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용역비'와 '연무대 훈련소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설계비' 등이

반영되어 논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스마트 국방혁신도시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논산시, 연산문화창고 개관, 문화와 예술의 색 입힌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2022. 03. 25. | 논산시 | 관광과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재창조된 논산시 ‘연산문화창고’가 개관했다. 연산문화창고에서는 ‘연산맛놀이’, 기획전시 ‘다시 봄, 다시:봄’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산마켓’을 진행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리고 많은 방문객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 연산문화창고



논산시, 대한민국 최초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사람 중심’유교문화 세계로 알릴 거점 될 것

2022. 03. 29. | 논산시 | 미래사업과

논산시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진흥원의 준공을 알렸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공식 개관은 오는 9월이며,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통합적 성격을 갖춘 라키비움 형식으로 구성하여 유교문화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이 쉽게 유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한민국 최초의 유교문화 중심 복합문화체험의 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룡시, 국토교통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선정 쾌거

2022. 02. 15. | 계룡시

계룡시가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시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주제로 환경·교통·안전 분야를 설정하고 추진과제로 ① 통학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② 계룡시 조밀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및 알림서비스, ③ 계룡시 맞춤형 버스정보 단말기 확대 사업, ④ 야간 과속방지턱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폴 구축사업을 제시했으며, 사업별 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해 충청권을 대표하는 스마트 도시, 작지만 강한 계룡시 조성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도시재생 ‘우수 지방자치단체 상’ 수상

2021. 12. 22. | 당진시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팀

당진시가 제8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에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부문 우수 지방자치단체 상을 받았다. 당진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원도심 쇠퇴와 갈등 유발 시설물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센터, 주민이 합심해 도시재생 공모 및 주민 제안 공모, 도시재생대학,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진시, 2021년 국·도비 공모사업 역대 최대 규모

2021. 12. 30. | 당진시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당진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충청남도와 중앙부처 주관으로 진행된 각종 공모사업에 총 78건이 선정돼 국·도비를 확보했다.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뉴딜300’ 사업(신평면 맷돌포)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합덕읍, 신평면),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이다.

당진시,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박물관 구축 지원사업’ 선정

2022. 04. 07. | 당진시 | 문화관광과 문화시설관리팀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박물관 구축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다양한 줄다리기 사진과 영상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색자의 관심에 따라 자료를 연계·제안하는 큐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키오스크와 미디어월 형태로 구현해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스마트박물관으로 도약하는 계획을 제안한 결과 예산을 확보했다.

당진시 신평면 마을회관, 공공건축가와 함께 조성

2022. 04. 07. | 당진시 | 건축과 공공건축팀

당진시가 복합화 마을회관(경로당) 건축에 앞장서고 있다. 시가 2020년에 개최한 ‘공공건축가와 함께 하는 공간환경 제안보고회’에서 당진형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복합화 표준모델 개발로 매산리 마을회관이 제안되었다. 지상 1층 경량 철골 구조물로 준공된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간을 구성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공공건축가와 함께 개발한 전국 최초 복합 표준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언택트 시대에 대비해 공간 분리가 가능한 ‘모듈러’ 공법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절감을 고려한 것도 눈에 띈다.

▼ 신평면 매산리 마을회관 전경



당진항만관광공사, 해양테마체험관 개관

2022. 04. 11. | 당진시 | 건축과 공공건축팀

당진항만관광공사는 노후화된 해양테마과학관을 리노베이션하여 개관식을 하고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해양테마체험관은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되어 당진항만관광공사(옛, 삽교호 함상공원) 단지 안에 지상 3층, 1,326㎡ 규모로 리노베이션되었다.

▼ 해양테마체험관 3층 영상관



부여군,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설계비 반영’

2021. 12. 09. | 부여군

부여군은 역사도시진흥원 건립비에 2022년도 설계비로 국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역사도시진흥원은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아름마을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역사도시전시관, 교육체험관, 연구조사관과 900석 규모의 강연식 공연·컨벤션관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핵심 콘텐츠는 디지털역사도시플랫폼 구축·운영,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K-Heritage(유산)의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한 역사도시 간 국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부여군은 그 밖에도 역사도시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조감도



부여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잇단 선정

2021. 12. 17. | 부여군

부여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을 통해 부여읍 쌍북리에 커뮤니티케어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육아 놀이방, 공부방, 체력단련실, 소모임실 등을 갖춘 시설로 조성되어, 아동, 청소년, 어르신을 위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부여읍 쌍북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감도



부여군, 2021년 충청남도 ‘도시재생 분야 우수기관’ 선정

2021. 12. 29. | 부여군

부여군이 2021년 충청남도가 실시한 도시재생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한 해 동안 충청남도 도시재생사업 관련 분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에 대해 이뤄졌다. 부여군은 2021년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국비 확보와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한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부여군, 한옥 건축에 최대 5천만 원 지원

2022. 05. 20. | 부여군

부여군은 2022년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부여 고유의 전통 한옥을 계승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군 문화재과에서 지원하는 고도 이

미지 찾기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고도 보존 육성 지구를 제외한 지역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한옥이다.

서천군, ‘202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2021. 12. 17. | 서천군 |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

서천군이 ‘2021년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장항읍 성주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성주마을 사이상생터 조성’이라는 주제로 장항읍 성주리 내 장기간 방치된 옛 노인회관 건축물을 활용해, 사회적 유입인구와 기존 거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핵심 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건강·문화복지 공간 및 쉼터, 생활 체육 공간,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문화공연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성주마을 사이상생터 조성 조감도



서천군, 37개 균형발전 사업에 1,857억 원 투입

2022. 01. 13. | 서천군 |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

서천군은 서천군 자체 균형발전사업, 충청남도과 서천군 포괄보조사업 등 총 37개 사업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2021년까지 추진한 충청남도 1단계 균형발전사업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물버들 생태체험학습랜드 등 31개 사업에 총 1,800억원을 들여 서천군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인프라들을 구축한 바 있다. 2022년 2단계 사업에서는 Re-Fine 장항; 문화재생 활력 사업, 항공 보안 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 서천군 특화 상권 재생, 문화예술회관 건립, 미래 농업 성장기반 마련 등 지역 신성장을 위한 혁신적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급한 군민 생활 서비스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청양군, 2022년 문화재 활용한 ‘문화재 활용사업’ 본격 추진

2022. 05. 06. | 청양군 |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재팀

청양군이 ‘문화재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2년에 진행되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모덕사(목면 송암리)를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 충청남도 기념물 청양향교(청양읍 교월리)를 활용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방기옥 가옥(남양면 봉암리)을 활용한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이다. 청양군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의 거리감을 좁혀 역사문화 체험 및 문화공연 공간을 군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한다.

▼방기옥 고택



태안군, ‘4차 산업혁명 핵심도시로!’ 국내 최대 드론 테마파크 준공

2021. 12. 14. | 태안군

태안군이 ‘태안군UV랜드(드론 테마파크)’ 준공식을 열었다. 태안군UV랜드는 남면 양잠리 일원 부지에 조성된 드론 등 무인기 전용시설로, 무인 조종 멀티센터를 비롯해 활주로, 광장, 드론 교육장이 자리했으며, 국제대회 규격의 드론 레이싱 서킷과 포장·비포장 트랙을 모두 즐길 수 있는 RC 자동차 서킷, 멀티컴퓨터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패드 등이 조성되었다. 또한, 각종 대회 등 이벤트 장소로 활용이 가능한 잔디마당과 주차장, 녹지공간 등이 조성된데다 바다도 가까워 휴식 공간으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태안군, 해양 신산업 거점 되다!”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첫 삽!

2022. 03. 18. | 태안군

태안군이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태안군 해양치유센터는 피트와 소금, 머드 등 태안이 보유한 천혜의 치유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오는 2024년까지 남면 달산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센터 내에는 해양 치유 서비스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건강관리 및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비롯해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도 갖춰지며, 울창한 해송림과 아름다운 백사장을 자랑하는 달산포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외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28개 해수욕장을 보유한 태안군의 다양한 해양레저 콘텐츠와 휴양 인프라를 활용해 레저복합형 모델로 운영할 예정이며, 수도권과도 가까워 많은 관광객이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관 및 공공공간

천안시, 도심서 깨끗한 공기 마시며 걷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2022. 02. 21. | 천안시 | 공원녹지과

천안시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시는 주요 도심 생활권 내 13개 구간, 녹지 5만5,863㎡ 면적에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 시는 인구밀도와 유동 인구 분포 중첩분석을 통해 천안IC와 만남로, 시청앞광장, 물충새공원, 천안축구센터, 번영로 근린광장, 삼성대로, 번영로, 백석로, 동서대로, 불당대로, 충무로, 장재천 등 13개 구간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공주시 '자연학습 치유정원' 준공...공주형 치유농업 추진

2021. 12. 14. | 공주시 | 농촌진흥청과 지도기획팀

공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자연학습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자연학습 치유정원 조성사업은 총 3개의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먼저 '공나들이정원'은 산책과 나들이 특화 공간으로 잠시 머물러 쉬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뤄졌다. '놀이팍정원'은 시설물과 식재를 최대한 활용한 자연의 색과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감각의 정원으로, '고미꽃터밭'은 치유농업과 연계한 체험활동 및 소통의 정원으로 꾸며졌다.

▼자연학습 치유정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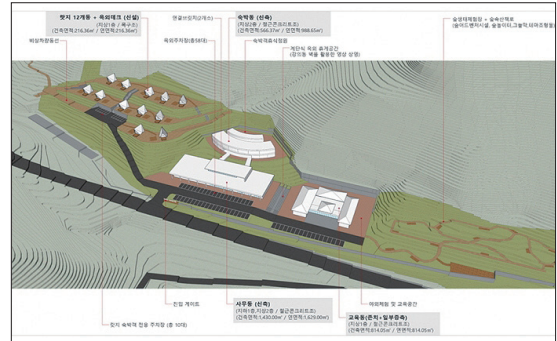


공주시, '계룡산 생태관광 시설' 본격 착수...354억 원 전액 국비 투입

2021. 12. 22. | 공주시 |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팀

공주시는 계룡산 국립공원 일원에 생태탐방 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착수했다. 우선 생태관광 기반의 체험형 숙박시설과 다목적 서비스 및 콘퍼런스 공간 등으로 구성된 계룡산 생태탐방원이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계룡산 감사 지구 체류 인프라 조성사업에서는 생태와 휴양, 치유, 비대면 체류를 위해 감사 주차장과 인접한 부지에 친환경 야영장과 힐링센터가 들어선다. 그리고 계룡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계룡산 동학산 주변에 '반포면 용수천 학봉리 무풍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학사 가로수길 경관 조명 설치 사업', '장군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도 수행했다.

▼계룡산 생태탐방로 조감도



공주시, 원도심 제민천교에 '물의 쉼터' 조성

2021. 12. 27. | 공주시 |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공주시는 공주대학교와 상생협력 과제로 진행한 지역사회 연계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1차 년도 사업으로 제민천교에 '물의 쉼터'라는 주제로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4개의 작품은 '자유로운 쉼터', '소통하는 제민천', '흔적', '공간의 전환'으로 공주대학교 가우리빙디자인학과 3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었다.

▼공주시, 원도심 제민천교에 '물의 쉼터' 조성



공주시, 도시디자인으로 세계유산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2021. 12. 28. | 공주시 |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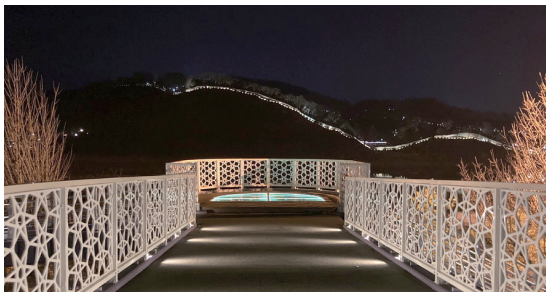
공주시가 '2020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웅진백제 보물길 열기 프로젝트' 사업을 마무리했다. '꿈꾸는 벚꽃길'이라는 디자인 콘셉트로 터미널-완충녹지-신관육교-신관공원을 잇는 거리를 개선했으며, 신관육교는 육교 난간 교체와 색채 개선, 경관 조명 설치 등 공주시 대표 관문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전면 리모델링을 했다. 또한, 육교 끝부

분에는 세계유산인 공산성을 전망할 수 있는 고마 전망대를 설치, 지역의 새로운 사진 촬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웅진백제 보물길 열기 프로젝트1



▼웅진백제 보물길 열기 프로젝트2



공주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선정...국비 100억 원 확보

2021. 12. 28. | 공주시 | 산림공원과 공원녹지팀

공주시가 '2022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 3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단체 협의 및 사업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바람생성숲(도심외곽), 연결숲(길목), 디딤숲(도심)의 구역을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공주시, 전막 별빛 휴(休) 테마거리 조성 완료

2022. 01. 04. | 공주시 |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공주시가 '전막 별빛 휴(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성사업은 테마거리를 조성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별빛'을 테마로 2021년에 거리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특화 거리 입구에는 상징 게이트를 세우고, 중앙부에는 별빛 조형물, 포토 시설물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삭막한 아스팔트 도로는 도막형 바닥 포장을 통해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공주시, 제민천 활력거점 공간 막바지 조성 한창

2022. 03. 23. | 공주시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반팀

공주시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 준공을 앞둔에 따라 막바지 마무리가 한창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총 3개의 다목적 공간으로 ① '제민천 역사문화체험관'은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② 제민천 활력거점 공간의 중앙에 위치할 '여행자 쉼터'는 기존 건물의 원형과 방고래를 보존, 전시해 옛 건물의 흔적을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조성, ③ 공주문학관 설립에 따라 추진되는 '공주문학 사랑방'은 지역 문학인들의 창작 공간이자 지역민·방문객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민천 활력거점 공간 계획도



공주시, '아듀! 아카데미극장', 마을어울림 플랫폼으로 재탄생

2022. 03. 27. | 공주시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공주시는 마을어울림 플랫폼 조성에 따라 철거를 앞둔 (구) 아카데미극장에 대한 이별식을 열었다. 이별식은 아카데미극장이 사라지기 전 새롭게 추진되는 마을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재사용 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결정했다. 이곳에는 복합 문화공간인 마을어울림 플랫폼이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또한 작은영

화관, 지역예술인 연습공간, 공유상가, 전시공간, 옥상정원 등 지역민과 예술인, 관광객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조성된다.

아산시 'SPAc@DOGO',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선정

2021. 12. 20. | 아산시

아산시가 추진하는 '도고온천지역 혁신플랫폼 SPAc@DOGO'가 2021년 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도고온천지역 혁신플랫폼 SPAc@DOGO에는 ① 심과 함께하는 휴식형 업무공간인 청수스��어, ② 지역주민과 방문자를 위한 치유정원인 기국파빌리온, ③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도고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도고아카이브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산시, 2022년 도시환경 정비 총력...클린시티 조성 앞장

2022. 01. 13. | 아산시 | 미래전략과

아산시가 2022년에도 '깨끗한도시' 사업 2단계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 여건 만들기에 집중한다. '깨끗한도시'는 '깨끗, 깔끔, 산뜻, 멋진'의 앞머리를 따 지은 아산시 도시환경 정비사업 캐치프레이즈로, 단순 청소중심 환경정비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의 양적 성장에 어울리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은 읍면동 특성을 반영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노후화된 공영주차타워 디자인을 재정비하고 미디어파사드를 도입해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웠다. 또, 충무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걷고 싶은 쾌적한 도심 공간을 확보하고, 가을철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은행나무 교체사업과 시민정원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 시민정원(좌)과 온양온천역 화단(우)



서산시 간월도항, 어촌뉴딜 사업 선정... 73억 원 확보

2021. 12. 07. | 서산시

서산시의 간월도항이 '2022년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웰컴센터 리모델링으로 홍보판매관, 갯벌체험센터, 어민센터, 달빛마을 카페 등을 조성, ② 방풍막을 비롯하여 관광객을 위한 종합안내판과 이정표 설치 및 간판 정비, 방파제 연장을 통한 어항 기능 보강, ③ 어업인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동작업장 및 어구·어망 창고 신설,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일의 능력 향상 등이다.

논산시, 외국인 주민과 함께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도시환경 조성 박차

2022. 03. 10. | 논산시 | 복지인권과

논산시가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취암동 일대 인도를 개선하고 안전·편의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외국인 주민과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지동 일원에 외국인의 공간을 조성·제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논산시, 주민 참여 바탕으로 맞춤형 지역 공간 조성한다.

2022. 03. 16. | 논산시 | 도시친화재생과

논산시가 '해월마을 공공디자인단' 특강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 및 워크숍은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있는 해월로·중앙로480번길·문화의 거리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구상도를 작성하는 데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해월마을 현황조사, 문제정의, 아이디어 발굴, 계획구상, 공간별 디자인 스케치, 주민평가회 등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민 맞춤형' 지역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충청남도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 최우수상 쾌거

2021. 12. 14. | 당진시 |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2021년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당진시 “우리동네 경관개선을 위한 성소마을 경관협정”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성소마을은 합덕성당, 합덕제 등 다양한 우수경관자원을 보존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특색 있는 성소마을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주민 전원 합의로 경관협정운영회를 구성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마을 경관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실현 가능한 내용을 도출해 경관협정을 체결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진시, 청소년 교내 유희공간 혁신사업 추진

2022. 04. 04. | 당진시 | 평생학습과 학교지원팀

당진시는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교내 유희공간 혁신사업’을 2022년 첫 시범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으로, 우리 학교에도 학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있다. 시는 공모를 통한 신청으로 관내 학교 3곳을 선정해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학습과 놀이,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문화공감터’ 열어

2022. 05. 02. | 당진시 |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당진시민의 제안에서 시작된 ‘문화공감터’가 문을 열었다. ‘문화공감터’는 옛 당진시네마 건물을 리모델링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총 3개 층 규모의 문화공감터는 공연장, 중연습실, 소연습실, 오픈스튜디오, 창작실, 전시실, 옥외전시실, 휴게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돼, 시민들의 활발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산군, 2022년 아인친수공원 스마트공원화 전개

2022. 03. 18. | 금산군

금산군은 주민 편의성 및 안전성 개선을 위해 금산을 아인리에 있는 아인친수공원 스마트공원화에 나선다. 공원에는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도입하고, 스마트 퍼걸러를 활용한 휴식 공간, 하천 변을 따라 설치된 쿨링포그를 주변 산책로와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금산을 아인친수공원



금산군, 제원면 월영산 출렁다리 개통

2022. 04. 28. | 금산군

금산군은 제원면 원골유원지 일원 월영산과 부영산을 잇는 출렁다리를 개통했다. 이 시설은 지역 관광개발을 위해 총 58억 원이 투입돼 평균 높이 45m, 무주탑 형태의 길이 275m, 폭 1.5m 규모로 조성됐다. 또한 출렁다리 주변에 데크길, 전망대, 주차장 등의 시설도 조성돼 인근 원골인공폭포와 인삼어죽거리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가 확대됐다.

▼ 월영산 출렁다리



부여군, '충남형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 공모 선정

2022. 02. 24. | 부여군

부여군이 '충남형 스마트 행복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 부문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규암면 외리와 부여읍 동남리에 주차면 수 각각 30면, 5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은 도로가 비좁고 주차장이 없어, 주거 생활이 불편한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부여군, 부여 백마강 국가 정원(생태 정원) 조성사업 탄력... 정부 투자심사 통과

2022. 03. 08. | 부여군

부여군의 '부여 백마강 국가 정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대규모 역세단지를 배경으로 한 백마강 둔치 일원에 부여의 역사성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정원을 조성해 2028년 국가 정원으로 승인받는 것이 최종 목표다. 백마강 국가 정원이 조성되면 부소산부터 부여도심, 궁남지, 백마강 변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완성되고, 더 나아가 규암 사비123 공예마을과 백제문화단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관광 거점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백마강 국가 정원(생태 정원) 이미지



청양군, 천장호 생태관광 기반 완성 '눈앞'

2021. 12. 29. | 청양군 | 문화체육관광과 관광개발팀

청양군이 '천장호 생태관광기반 구축사업'과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① 생태관광기반 구축사업을 통한 천장호 입구에서 팔각정까지의 예코 워크, 생태체험원, 미디어 체험공간과 휴식공간 조성, ②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을 통한 출렁다리와 알프스마을을 연결하는 탐방로 설치이다. 특히 알프스마을 '뷰티센터'로 이어지는 구름다리는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독특하고 아름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천장호 생태관광기반 구축사업



청양군, 관광객 500만 시대 위해 669억 원 투자

2022. 04. 11. | 청양군 |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정책팀

청양군은 올해 칠갑호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대형사업을 차레로 추진한다.

▼ 주요사업내용

- ①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사업'으로 관람형 체험시설물 '칠갑타워'를 조성한다.
- ② '칠갑호 수상 관광 조성사업'을 통해서 수상 엘리베이터, 수상 캠핑 시설 등을 설치한다.
- ③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천장휴게소에서 천장리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 ④ '백제문화체험관 진입로 확장사업'은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 ⑤ '다락골 관광자원 조성사업'은 화성면 농암리 새터 성지에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기 위해 실시시설 용역 중에 있다.
- ⑥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을 완료하면서 천장호 출렁다리와 알프스마을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조성했다.
- ⑦ '천장호 생태관광 기반 구축사업'으로 예코 워크와 놀이터를 만들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배려했으며, 조명 시설을 설치했다.
- ⑧ '장곡천 수변생태 체험파크 조성사업'으로 '청양 알프스' 공원을 조성했다.

청양군, ‘알프스 공원’ 준공…생명의 근원 일깨워

2022. 04. 18. | 청양군 | 문화체육관광과 관광개발팀

청양군 장곡천 수변 생태 체험 파크의 상징이자 중심인 ‘알프스 공원’이 탄생했다. 알프스 공원은 대치면 장곡리 일원에 조성되었으며, 장곡사를 중심으로 주변의 백제문화체험 박물관, 장승공원과 연계되면서 슬로프 산책로, 조형물, 미로 정원, 안개분수, 수변 산책로 등으로 구성됐다. 동지 형태로 조성된 슬로프 산책로에는 알 조형물을 중심으로 풀을 뜯고 있는 양 조형물을 세웠고, 군 캐릭터 ‘청양이’를 설치해 ‘인생 숲’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양군, 국내 최초 어드벤처 시설 ‘에코 워크’ 준공

2022. 04. 19. | 청양군 | 문화체육관광과 관광개발팀

청양군이 정산면 천장리 천장호 입구~황룡정 구간에 국내 최초 어드벤처 시설 에코 워크를 설치하고 개방했다. 그물망을 소재로 구성된 에코 워크는 네트 워크 코스, 네트 브리지 코스, 네트 타워 코스, 네트 어드벤처 브리지 코스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전체 길이 177m 구간에 23개의 체험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에코 워크



홍성군, 한용운 생가지 새 옷 입는다! ‘역사공원 첫 삽’

2022. 03. 18. | 홍성군

홍성군 ‘한용운 생가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2022년 3월 첫 삽을 들었다. 홍성군은 한용운 생가지 일원에 외전시장, 생태 습지, 체험 휴게시설 등을 확충한다. 한용운 선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위인의 일대기와 문학작품 스토리를 담은 공원을 조성하고, 각종 조형물과 잔디마당, 데크산책로, 야외 무대 등 ‘새 옷’으로 단장해 생가지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 한용운 생가지 역사공원 안



예산군, 체류형 농촌테마관광시설 첫 삽 뜨다!

2021. 12. 07. | 예산군

예산군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기공식을 예당관광지 일원 사업지에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예당호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전망대를 비롯해 체류형 농촌 체험활동, 예당호를 통한 치유와 휴식을 위한 휴양문화시설(착한농촌 팜센터, 착한농촌 지원센터, 작물 경작지, 예당치유정원, 어린이놀이터),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태안군 ‘가경주항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 어촌 혁신 이뤄내다!

2021. 12. 03. | 태안군

태안군은 ‘가경주항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으로 부잔교를 설치해 선박들이 편리하게 정박할 수

있게 됐으며, 물양장 설치, 선착장 연장 및 보강으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작업공간 부족 문제도 해소됐다. 또한, 마을 길 재포장, 담장 도색, 벽화 그리기로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민속광장 조성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다. 마을 전통어업 계승을 위해 독살을 복원하였으며 기존 창고를 리모델링해 다목적실을 조성하는 등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태안군, “반려동물과 함께 오세요!” 반려동물 놀이터 인기

2021. 12. 06. | 태안군

태안군 남면 당암리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내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가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다.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과 ‘뽀뽀 우스 슬로프’, ‘휴틀라인’ 등 놀이기구, 대형 파라솔, 옥외용 벤치, 음수대 등 휴게시설이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편안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군은 중·소형견 구역과 대형견 구역을 분리하고, 이중 출입문과 함께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특히 신경 썼다.

태안군, ‘황도항 어촌뉴딜300 사업’ 추가사업비 확보!

2021. 12. 29. | 태안군

태안군은 황도항 어촌뉴딜300 사업 기본계획 심의에서 현 총사업비 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사업 ‘황도마켓’을 제안하여 추가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황도항 내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상업 및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군은 마켓을 조성해 지역특산품인 명품 바지락을 활용한 ‘바지락 떡볶이’와 ‘바지락 술찌’ 등의 밀키트를 판매하고 식당 및 휴게공간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4,544km ‘코리아둘레길’, 태안의 기적을 만나다!

2022. 01. 06. | 태안군

태안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모에 선정됐다. 우리나라 외곽의 기존 길

을 연결해 조성한 ‘코리아둘레길’은 총 4,544km에 이르는 국내 최장 걷기 여행길로, ① 비무장지대의 DMZ 평화의길, ② 서해의 서해랑길, ③ 동해의 해파랑길, ④ 남해의 남파랑길로 이뤄져 있다. 특히, 태안지역에서는 지난 기름유출 피해 당시 방제 길로 쓰였던 솔향기 길이 코스에 포함돼 태안이 지닌 희망의 이야기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본격화!

2022. 02. 09. | 태안군

태안군은 총 7개 사업에 예산을 들여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2년 차인 2022년에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①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사업’과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②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1년 말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태안읍 동문리에 2023년 5월 준공 목표로 가족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 문화센터 등 조성, ③ 미래 산업을 위한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④ ‘태안 관광 서비스 체질 개선사업’의 경우 DMO 조직 육성과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 시행, 남면 달산리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사업’ 시행 등이다.

▼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시설 조감도



태안군, ‘어촌활력증진 지원(Post-어촌뉴딜) 시범 사업’ 공모 선정!

2022. 02. 28. | 태안군

태안군 남면과 안면읍 일원이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 사업 지로 최종 선정돼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은 귀어·귀촌인 중심 지역 기반 연구소인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과 코컬매니지먼트그룹인 ‘주식회사 로모’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앵커 조직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 사업 준비에 나서왔다. 군은 2022년부터 해당 지역에 ① 어촌 돌봄 스테이션 조성, ② 어촌 살기 스테이션 조성, ③ 어촌 먹거리 스테이션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군, “우리 바다 보며 놀아요!” 영목 수변공원 놀이터 조성

2022. 05. 26. | 태안군

태안군은 고남면 고남리 일원 영목항 수변공원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했다. 영목 수변공원 어린이 놀이터는 조합놀이대·짚라인·시소·흔들놀이대·파고라 등의 편의·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바닥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푸른색 바탕에 물고기·꽃게·주꾸미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동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또한, 놀이터에서 바다와 원산안면대교를 볼 수 있어 힐링과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인근에 수변공원 주차장이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남 영목 수변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마을만들기

천안시, 30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완료

2021. 12. 23. | 천안시 | 복지정책과

천안시는 ‘주민이 주인공이다’ 제1기 천안시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8개월간 30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추진단과 함께 주민 스스로 본인이 사는 지역(마을)의 다양한 복지 문제를 파악했고 그 문제를 해결·예방하는 주민 주도의 복지계획인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했다. 각 읍면동은 원활한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수립 단계별 교육을 운영해 왔다.

천안시, 2022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2개 마을 선정

2022. 04. 04. | 천안시 | 농업정책과

천안시 ‘광덕면 광덕1리’와 ‘성거읍 문덕2리’ 마을이 2022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충청남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2개 마을은 3년에 걸쳐 각 5억 원과 2억 원을 지원받아 마을 발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진시, 신평면 소규모 재생사업 성황리에 마쳐

2021. 12. 31. | 당진시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팀

당진시는 신평면 소규모 재생사업의 하나인 마을환경개선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시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①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방 꾸미기, ②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을 위한 아동돌봄 프로그램,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돌봄공동체 한마당 행사, ④ 지역돌봄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⑤ 등하굣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신평 안심길 프로젝트 등 5개 세부 사업을 추진했다.

당진 합덕 연지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엄지 척’

2022. 01. 03. | 당진시 | 농촌진흥청과 농촌융복합팀

당진시 합덕읍 ‘합덕 연지마을’이 ‘2021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평가’ 중 체험과 교육 두 가지 부분에서 2등급에 선정됐다. 시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한 벚꽃 공예와 고구마 캐기, 계란 꾸러미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 마을 경관개선을 위한 가로 꽃길 조성 등의 주민 공동체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아산시 온양 원도심 양성 평등거리 마을 카페 새봄맞이 새 출발

2022. 03. 18. | 아산시 | 도시재생과

아산시가 온양 원도심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커뮤니티 마을 카페가 ‘온도심’으로 새롭게 단장해 영업을 개시했다. 그동안 성매매 집결지 장미마을은 양성 평등거리로 변화됐고, ‘마을 카페 창업 교육’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들이 마을 카페를 운영해왔다. 이번 새 단장을 통해 ㈜디자인 온도가 지역 청년들과 협력해 ‘온도심’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하게 됐다.

▼마을 카페 온도심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에 96억 원 투자

2022. 01. 14. | 청양군 | 농촌공동체과 농촌개발팀

청양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에 96억 원을 투자한다. 2022년 ① 신활력플러스사업, ② 청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③ 목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④ 대치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⑤ 마을 단위 자율개발사업, ⑥ 장평면 미당1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⑦ 목면 화양1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11개 지구에 72억 원,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신규 5개 지구에 24억 원을 투입해 각 지역을 정비한다.

청양군, 생활 여건 개조사업 3년 연속 유치

2022. 03. 14. | 청양군 | 농촌공동체과 농촌개발팀

청양군이 2022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으로 선정됐다. 군은 선정된 인양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안전·위생 등 기반시설 정비, 주택 정비, 낚은 담장 철거, 휴먼케어, 주민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세부 사업은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 설치, 마을하수도 설치, 주차장 조성, 경로회관 리모델링,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재래식 화장실 철거, 낚은 담장 철거, 유휴공간 정원 만들기 교육, 집수리 기술 교육, 전통문화 전승 지원 등이다.

홍성군, 오관2리가 젊어진다! 동문동 ‘청춘로드’ 조성

2021. 12. 22. | 홍성군

홍성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예비사업에서 홍성읍 오관2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공동체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 경제조직 육성 등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청춘로드, 청년 창업자 및 지역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옛 ‘홍고통’을 청년이 모여드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성군,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자율개발(소규모) 공모 선정

2022. 04. 07. | 홍성군

홍성군은 ‘2022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공모사업’에 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홍동면 금당리 백동마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센터와 마을 모임방을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리더 교육과 사회적 농업 교육을 토대로 ‘꿈꾸는

백동단’ 운영과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갈산면 동산리 동산마을은 지역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관저루 고개에 고개쉼터를 조성하여 노령주민의 도보 이동 시 휴식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 경관 교육 및 주민리더 포럼을 진행하여 동산 환경 정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홍성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갈산면, 결성면) 본격 추진

2022. 04. 21. | 홍성군

홍성군은 기초생활거점사업(갈산면, 결성면)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군은 갈산면, 결성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운영에 관한 규약(안)을 제정하고 주민 설문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다. ‘갈산면’의 경우 신축되는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 주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 ‘결성면’은 폐교돼 방치 중인 결성중학교 건축물을 복합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운동장을 야구장으로 조성한다.

예산군, 2022년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2개 마을 선정

2022. 04. 05. | 예산군

예산군은 2022년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신중1리’에서는 마을회관 및 여사울뜨레마당 시설개선, CCTV 및 방향 표지판 정비, 지역 소득 증대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며, ‘상하1리’에서는 마을박물관 유류공간 정비,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및 축제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2022 漁(어)울림 마을’ 대상 수상!

2022. 05. 13. | 태안군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마금마을이 해양수산부 ‘2022년 漁(어)울림 마을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마금마을은 귀어가구 17세대와 귀촌·다문화 가구 1세대가 기존 주민들과 한

데 어울려 살아가는 작은 마을로, 귀어·귀촌인 유입을 위해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에 힘쓰고 마을 발전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등 더불어 사는 어촌마을 조성에 앞장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공주시, “방치건물을 상권 홍보판으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눈길

2021. 12. 24. | 공주시 | 경제과

공주시는 지역 작가들이 참여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교차로의 한 건물을 공주산성 상권 이야기 홍보판으로 새로 단장했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현장실사, 건물주와 협약, 공공디자인 작가 협조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추진해왔다. 시는 새롭게 조성된 홍보판을 상권을 대표하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알리는 홍보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공주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서산시,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이용 편의 UP’

2022. 04. 13. | 서산시

서산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2021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경사로를 알루미늄, 철판, 방부목 등 현장에 맞춰 설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바닥면적이 300㎡ 미만이고, 체납이 없으며 건물주 동의를 얻은 사업장이다.

당진시, 시민 보행권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한 걸음 더!

2021. 12. 03. | 당진시 |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속가능협력팀

당진시는 대덕동에 있는 한 한방카페에서 ‘당진시민 보행권 개선 리빙랩 프로젝트 현장 수료식’을 진행했다. ‘당진시민 보행권 개선 리빙랩 프로젝트’는 턱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접근이 쉽지 않은 주요 상점에 입간판 경사로를 설치해, 평상시에는 가게 홍보를 위한 입간판으로 사용하다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이 상점 이용 시 경사로로 분리 설치해 시민의 보행권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당진시 2기 놀이환경 조사단, 놀이시설 개선 제안

2022. 02. 18. | 당진시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당진시가 ‘놀이환경 조사단’의 2기 활동을 마친 후 결과 보고 및 처리결과 공유를 위해 온라인 영상을 통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놀이환경 조사단은 2020년 4월 아동 17명으로 처음 구성해 어린이공원(놀이터)을 찾아가 직접 체험하며 주변 환경 및 놀이기구 관리 현황 등을 진단하고, 그 의견을 시에 제안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2기 조사단은 70개소 아파트 놀이시설을 진단했으며, 아동들이 제안한 의견은 관리부서인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전달해 검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당진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시민 안전과 환경지킴이!

2022. 03. 04. | 당진시 | 교통과 교통관리팀

당진시가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구)터미널 회전교차로 부근에 설치하고 준공식을 진행했다. 정류장 내부에는 무선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 당진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방범

용 CCTV, 실시간 버스정보 시스템(BIS), 공기청정기, 냉·난방기와 영상 송출 모니터가 설치되었다. 또한, 10m 길이의 복합형 690W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의식을 전환하는 등 친환경 그린 정류장으로도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당진시, 건축물 개성 살린 ‘자율형 건물번호판’ 확대 추진

2022. 03. 22. | 당진시 |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당진시가 건물 이미지에 적합한 특색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시는 2021년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공동주택 중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확정했으며, 2020년 시범 사업을 통해 선정된 ‘당진시 공동주택 자율형 건물번호판’ 표준안을 토대로 설치한다.

▼공동주택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례



금산군, 여성친화도시 안심귀갓길 도로표지병 설치

2021. 12. 31. | 금산군

금산군은 2021년 여성친화도시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금산읍 인근 407m 구간에 도로표지병 100개를 설치했다. 군은 SNS를 통해 참여한 주민참여단과 함께 사업 위치, 안전시설물 종류, 조명색 등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고 2022년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사업 추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양군, 스마트 교통환경 개선사업 공모 선정

2022. 02. 23. | 청양군 | 건설도시과 도시재생팀

청양군이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2022년 스마트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사업선정에 따라 보행자나 이동체를 인식한 후 경고음을 내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바닥형 횡단보도와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2022년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홍성군, 여성친화 안전·안심 대학가 조성

2022. 05. 12. | 홍성군

홍성군은 홍성읍 남장1리 남산마을 일원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방범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여성친화 안전·안심 대학가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를 위한 마을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CCTV, LED 보안등, 로고젝터, 비상벨, 무인택배함 등 방범 기반을 마련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였다.

▼대학가에 설치된 무인택배함



▼대학가에 조성된 안심벨



홍성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에 ‘사물주소판’ 설치

2022. 05. 19. | 홍성군

홍성군은 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9종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사물주소판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9종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소공원, 어린이공원, 둔치주차장,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지진옥외대피소, 줄음쉼터이며, 총 657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사물주소판



